

고대시가 기술 및 예상문제

고대시가의 주술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문학일반론의 관점에서 ‘심리적 실재’ 개념을 고려하여 이상향이나 각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욕망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욕망을 표현하는 전통인 방식, 각 갈래별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며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읽어 나가시길!

2001- 8. 다음에 제시된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6점)

(가) 公無渡河 (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넘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 (물에 들어가 빠져 죽으니.)
當奈公河 (내 님을 이제 어찌하리오.)

(나)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澗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다) 大澗江 아즐가 大澗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립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널빅에 아즐가 널빅에 연ذن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大澗江 아즐가 大澗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8-1. 위의 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물(강)’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3점)
8-2. (가)와 (다)가 **노래로 불리다가 문헌에 정착되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헌을 들어 설명하시오.** (3점)

Ⅰ 2001- 8번해설 Ⅰ 문학교육론

- 문학갈래의 속성을 안다 (시의 상징을 안다)
- 문학갈래의 전승 및 향유방식을 안다 (구비문학이 기록문학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시대적상황을 고려한 창작동기에 주목하여 정리할 것 -말하려는 목적)

‘상징’에 대하여(지속적으로 출제되나 완벽정리오)

문학의 상징과 아이러니, 역설은 주된 종류의 대상이니 기술문제화 하었다고 소홀히 하지말고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정서나 욕망의 반영으로서의 상징,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책으로서의 상징,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보편적 정서의 반영으로서의 상징, 인류 보편적 체험의 결과물로부터 비롯된 정서의 반영으로서의 상징 체계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가 한 恨이라하더라도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 구체성이 다른은 물론이요 문제해결책도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자
예) 공무도하가, 서경별곡, 송인에서 다루는 공통 주제는 한이지만 각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는가에 따라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물론이고 대응방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가를 묻는 문제라든가 ‘우라지오 가가운 항구에서’처럼 우리 민족의 현실로부터 오는 시련을 이용악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그것이다. 상징은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정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1. 시적 대상 찾기
2. 개인적 체험 (문제상황-현실-과 그에 대한 인식) 찾기
3. 2로부터 비롯되는 정서 찾기
4. 문제해결책(대안) 찾기 순으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다. ‘시적 정황’이라는 용어는 2와 3을 결합한 것이다
이는 문학교육과정상의 현실의 수용과 생산과 관련되어 있음에 유의하자

물			
공통점	원형적 상징	인류의 대상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보편적 정서	
	전통적 상징	민족의 대상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보편적 정서	
차이점	개인적 상징	1. 화자가 처한 상황	문제상황
		2. 화자의 입장, 처지	문제인식
		3. 화자의 정서적태도	문제해결책 (주제/정서)

- 1. 신화비명에 나오는 ‘원형 상징’ 정리하기
- 2. 신비명에 나오는 ‘상징’ 정리하기
- 3. 창작 교육으로서의 ‘상징’,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현대시교육론’ 참고)

- 1) 상징의 개념과 종류
가) 대상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심리, 정서적 태도를 보조 관념을 매개로 형상화하는 기법
나) 원형적 상징, 전통적 상징, 개인적 상징

□ 〈공무도하가〉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를 설명해 보고 이런 물의 이미지가 고려 가요, 서경별곡, 정치상의 송인, 조선 시대의 시조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자.

이 작품에서 물은 이별의 공간이자 계기이며 영원한 만남을 낳는 의미를 지닌다.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이별하게 되며, 그의 아내가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다시 그들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결합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물은 서경별곡이나 송인 그리고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 등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서경별곡 등의 작품에서는 이별의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만 나타날 뿐 영원한 만남의 계기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상호 텍스트성 - 고려 가요 〈서경별곡〉과 고전 소설 〈심청전〉, 김동리의 〈무녀도〉를 각각 찾아 읽고, 〈공무도하가〉의 물의 이미지와 공통점 및 차이점을 말해 보자.

<서경별곡>의 물은 ‘이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심청전>에서 물은 가난한 여염집의 처녀였던 심청이를 왕후로 탈바꿈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무녀도의 물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물은 죽음 혹은 이별이라는 상징성유근 지니면서 동시에 죽음을 통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와 상승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곧

물은 죽음과 재생의 이미지를 공유한 사물이 되는 것이다. 이 때의 재생은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죽음 이전 단계에서 질적으로 변화하고 상승한 새로운 존재로의 재생을 의미한다. <공무도하가>와 대비하여 보면, <서경별곡>, <무녀도>의 죽음 혹은 이별이 단절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심청전>은 죽음을 통한 재생이라는 이미지에서 차이가 있다.

- 【관련 기술문제 풀어보기】
- 1. 황동규 ‘조그만 사랑의 노래’... : ‘눈’
- 2. 주요한 ‘불놀이’ : ‘불의 원관념
- 3. 오정환의 ‘어포’ : ‘안개’
- 4. 김승옥 ‘무진기행’ : ‘안개’

2006-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7점)

(가) 거북아, 거북아, 龜何龜何
머리를 내이라. 首其現也
내어놓지 않으면 若不現也
구워서 먹으리. 燔灼而喫也

— ‘구지가(龜旨歌)’ —

(나) 오늘날 다 새겨다 호의 메고 가자스라
내 눈 다 먹여든 네 눈 점 먹여주마
올 길헤 췌 따다가 누에 머저 보자스라

— 정철, ‘훈민가(訓民歌)’에서 —

(다) 내 말씀 광언(狂言)인가 저 화상을 구경하게
남존 한량 개동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융통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랑없이 주재넘어
시체(時體)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것다
장장춘일 낮잠 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매팔자로 무상출입 매일 장취(長醉) 게트림과
이리 모여 노름 놀기 저리 모여 투전질에
기생칠 처가(置家)하고 오임쟁이 친구로다
사랑에는 조방군이 안방에는 노구 할미
명조상(名祖上)을 떠세하고 세도 구멍 기웃기웃
염량(炎凉) 보아 진봉(進奉)하기 재업을 까블리고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빛이 태산이라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기
후할 데는 박하여서 한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데는 후하여서 수백 냥이 헛것이라

— ‘우부가(愚夫歌)’에서 —

- 16. (가)~(다)를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하시오. (3점)
- 17. (다)의 작중 화자가 비판하고자 한 ‘개동이’의 행위와 당시의 세태를 분석하고, 비판의 잣대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밝히시오.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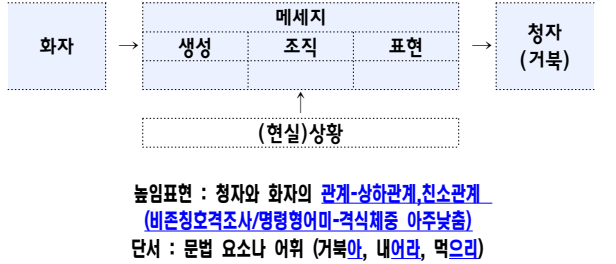
Ⅰ 2006- [16~17] 번해설 Ⅰ 문법교육(능력표현)으로서의 문학교육

- 의사소통행위로서의 문학을 안다
- 작품 속에 드러난 상황을 통해 창작 당시의 현실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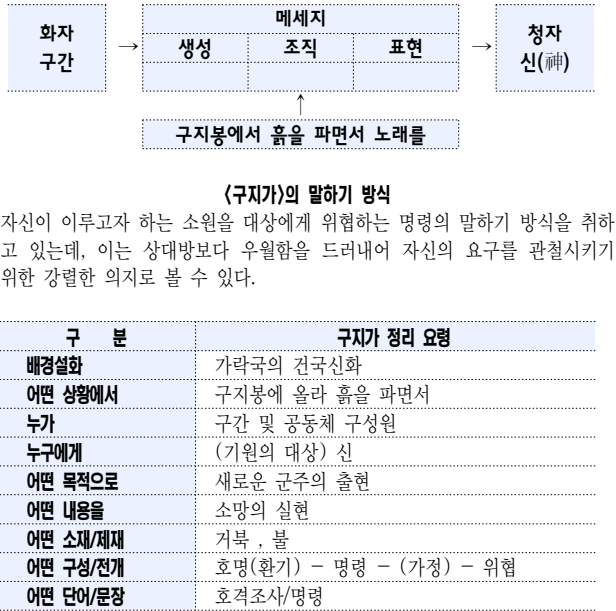
정리사항2 고대시가 정리 요령

- 1) 존재방식 차원에서 : 구비전승되다가 문자로 정착
가) 한역시 정리 : 2줄 네 토막 형식의 한시 →용가) 2줄 네 토막 전절과 후절 대구
나) 문헌 정보 정리
- 2)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문학 - ‘구지가’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로 어떤 내용을 어떠한 형식이나 표현요소에 담아 전달하고 있는가

가) 내재적 관점 - 존재론적 관점



나) 외재적 관점 - 배경설화를 중심으로



3) 시의 내용상 종류 : 배경설화와 시가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것

구지가	공무도하가	왕조가
서사시	과도기	서정시
배경설화의 일부 (가락국의 건국신화)	백수광부 처 (서사) →곽리자고 처 (서정)	배경설화와 분리 설화 → 유리왕
국가의 흥망성쇠	가사명과 곡조명	개인의 주관적 정서

4) 불러들이기의 관습
작품의 내용과 무관한 사물을 불러들여 화자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관습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욕망 표현방식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의 배경 설화를 보면 ‘구지가’는 구지봉에서 땅을 파며 부른 노동요에 해당하는 노래이지만 작품 속엔 배경 설화와는 전혀 무관한 ‘거북이’가 등장하고 있다.
왜일까?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사마니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는 원시공동체 사회로 농경사회였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거북’은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원의 대상이었으며 고대인의 욕망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영험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러한 ‘거북’을 강한 명령조의 어투로 호명하는 행위는

5) 민요, 고대시가 및 향가의 주술적 성격에 대하여

- 심리적 실재 (현실엔 존재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것)
예) 무릉도원 / [선택동] 나그네 등
- 문학 작품에 쓰인 언어의 심리적 효과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주술성)
- 주술성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하려는 의도

□ 〈구지가〉와 〈서동요〉에 나타난 주술적 표현의 차이점

두 작품 다 주술적 표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다. ‘구지가’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임이 분명히 나타나는 반면 ‘서동요’의 경우는 바라는 일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단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전자가 ‘까지야 까지야’ 현 집 줄게 새집 다오’류의 주술이라면 후자는 ‘우리 아기 잘도 잔다’류의 주술이다.

□ 〈논매기 노래〉와 〈구지가〉에 나타난 주술적 표현의 차이점

이 민요에서는 논매기를 처음 하는 시기에 이미 가을걷이 때의 모습을 확정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논매기를 하면서 풍년에 대한 기대를 누구나 가질 수는 있지만, 이미 그 결과를 확정해 놓음으로써 노래의 주술성을 <구지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풍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풍년의 모습을 노래함으로써 소망하는 결과를 이를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미리 확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하는 설정은 노래의 주술적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구지가>에서는 소망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위협하는 방식으로 주술적인 연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논매기 노래에서는 소망하는 결과를 미리 확정하여 그 결과를 이루는 방식으로 주술적인 연사를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노래의 주술성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

□ 구지가와 동요 ‘두껍아, 두껍아 현 집 줄게 새 집 다오’

공통점 : 호명 - 명령의 구조를 통해 소망을 실현시키려는 노력 형상화 불러들이기의 관습이 나타남
차이점 : 강압적인 어조로 위협, 부드럽고 공손한 어조(상대높임+명령문)

□ 〈구지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함께 불렀다고 하는데, 소망의 실현을 기원하는 대상에게 명령과 위협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노래에서 왜 위협과 명령의 연사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발표해 보자.

거북에 대한 명령과 위협이 새로운 군주의 출현과 관련된다고 할 때, 새로운 군주가 다른 곳에서 들어온 존재라고 한다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군주가 토착 세력인 수호신을 위협하여 자신의 존재를 우월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거북에게 머리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강요하는 의도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불로써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토착 세력인 구촌의 사람들이 새로운 군주를 내세운 다른 집단에 굴복하여 구지봉의 수호신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 〈구지가〉와 〈해가〉 두 노래의 내용 및 배경 설화를 근거로 ‘노래하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의 가장 태도가 어떻게 다를까?

<구지가>는 한 집단의 우두머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부른 노래인 데 비하여, <해가>는 바다의 용이 수로 부인을 납치하자 수로 부인을 다시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형식과 대상은 유사하지만 노래를 부른 목적과 가창자의 태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 <구지가>에서 거북은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신적인 존재이지만 <해가>의 거북은 수로 부인을 납치함으로써 부정적 행위를 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거북의 죄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또 <구지가>에서 제 1행과 2행의 내용이 <해가>에서 제 1행에 모두 포괄되어 있으며, <해가>의 제 2행은 거북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가지평가가 들어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지가>에서 거북을 위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새로운 군주를 맞이하는 데에 있다면 <해가>에서는 납치당한 ‘수로 부인’을 되찾으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즉 전자가 새로운 상황을 염원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후자는 이전의 상황으로 원상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창자의 거북에 대한 태도는 배경 설화와 관련시켜 볼 때 큰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 공통점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환기-명령-가정-위협 의 구조를 지닌다. 거북은 신령한 존재를 나타낸다, 소원을 빌어 성취하는 노래이다, 집단 가무의 형태를 띤다, 노동을 상징하는 몸동작이 수반된다.

· 차이점

- ▶ 구지가 - 왕의 출현이라는 공적이고 집단적인 노래, 4언 4구의 한역시가,

신군을 맞이하기 위한 주술요.
- ▶ 해 가 - 빼앗긴 여인의 구출이라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노래, 7언 4구의

한역시가, 액을 당하고 헤어나려는 주술요.

□ 〈구지가〉를 청유형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제4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며, 본래와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까?

고 警修堂全藁》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우리 나라의 시조를 한시 칠언절구로 번역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고전문학에서 속요·가사·시조와 같은 것은 노래로 불린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만 전하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인 학자들이 그 내용을 소악부로 번역해 둔 것이다. 신위는 〈소악부〉를 지으면서 서문에서 몇 가지 필요성을 말하였다. 우리의 노래는 자연스럽게 음률에 맞아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런데 이 노래를 시로 채록하지 않으면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점을 걱정하면서 이제현 〈소악부〉의 공적(功績)을 칭찬하였다. 이로 보아서 신위의 〈소악부〉는 이제현의 〈소악부〉에 영향을 받아 지은 것이다.

이유원(李裕元)의 〈소악부〉⁴⁾는 45수가 전한다. 이 〈소악부〉는 당시에 불리던 시조 45수를 한시 칠언절구로 번역한 것이다. 이 〈소악부〉는 신위의 〈소악부〉를 보고 모방하여 지었다고 그의 〈소악부〉서(序)에서 말했다. 신위의 〈소악부〉는 시조라는 단일한 소재만 소악부의 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유원의 〈소악부〉도 시조만을 소재로 삼아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이유원은 이밖에도 많은 악부의 시를 지었다. 그 중에서 〈해동악부 海東樂府〉 100수는 이제현의 소악부법을 따랐다. 그 이유는 이제현의 〈소악부〉시의 내용은 속요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 민풍(民風)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현의 〈소악부〉를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여 〈해동악부〉라는 역사적 사실의 시를 짓는 동기로 삼았다.

현대의 불교학자이었던 권상로(權相老)가 《지굴이향집 枳橘異香集》이라 하여 시조를 한시 칠언절구로 번역한 것 310수가 있다. 작자는 소악부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한시문학의 유형으로는 소악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작품까지를 넣어서 한국의 소악부로 삼아야 한다. 이상이 우리 나라 소악부의 개략이다. 소악부의 문학사적 공헌은 말과 글이 달랐던 옛 시대에, 노래의 말을 그대로 전할 방법이 없자 노랫말 그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시로라도 번안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의 보존에 큰 의의가 있다. 신위 이후로는 시조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악부 형식으로 시조의 내용을 수용한 것은 노래와 시의 교통을 시도한 좋은 예로 이해될 수 있다.

晩)·이정(李鼎)·한호(韓濩)·황진이(黃眞伊)·서익(徐益)·박인로(朴仁老)·조경림(趙慶瀾)·이정신(李廷薰)·정은(鄭蘊)·김상용(金尙容)의 순으로 20인의 작품을 실었다. 황진이의 작품이 3수, 이명환과 윤선도의 작품이 각각 2수씩 수록되었다. 그리고 작자 미상이 16수인데, 이 중에서 출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이 2수이다. 이 작품은 이유원(李裕元)의 「가오소악부(嘉梧小樂府)」를 짓게 한 동기가 되었으며, 후대의 사대부들에게 많이 애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현이 처음 '소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 신위의 이 작품에서 다시 이 이름이 쓰이게 되었다. 이 작품은 악부가 번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의의에 대한 자각과 그 표현으로 의식을 형상화한 것이며, 또한 시문의 보완을 위한 작품으로서 출현하게 된 것이다.

4) 작자의 문집인 『굴산문고(楠山文稿)』 가오악부조(嘉梧樂府條)에 「해동악부」 116수, 부록 5수 포함 121수와 함께 「소악부」 45수가 실려 있다. 규장각 도서관의 『굴산문고』 필사본 16책, 『가오악부(嘉梧樂府)』 13권 7책과 이호영(李虎榮)이 소장한 『가오고략(嘉梧稿略)』 26책 등에 있다. 이유원 자신이 그의 소악부서(小樂府序)에서 분명히 밝혔던 것처럼, 신위(申緯)의 「소악부」 40수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아 지은 것이며, 신위의 「소악부」 양식을 모방하여 칠언절구의 한시 형태로 우리의 시조를 번역한 것이다. 구성 및 형식이 소악부는 「양류지(陽柳枝)」·「하엽배(荷葉杯)」·「경루자(更漏子)」·「접연화(蝶戀花)」·「풍류자(風流子)」·「봉황대(鳳凰臺)」·「원랑부(沅郎婦)」·「남산수(南山壽)」 등 45수의 칠언절구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인생무상, 늙음의 탄식, 산수의 풍치, 조조와 유비의 전쟁고사, 이별과 사랑 등 인간이면 누구나 다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정서를 추구한 것이 지배적이다. 이런 체계는 전대 일반 정형한시에서는 경염부박(輕豔浮薄)하다고 하여 금기시해 온 것들이기 때문에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이 작품에서 수렴, 번역한 시조는 대부분 20종 이상의 시조집에 채록되어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작품이 당대 일반 민중과 시조 향유층에게 널리 알려져 보편화된 시조를 작품화하였음을 말해 준다. 시조를 한시로 번역하는 방식은 시조의 1·2구를 1행으로, 3·4구를 2행으로, 5구를 3행으로, 6구를 4행으로 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1구를 1행, 2구를 2행, 3·4구를 3행, 5·6구를 4행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향가

향가 문학은 협의의 향가라는 점에서 향찰로 표기된 문학형식이라는 관점에서 향찰, 이두 구결의 차이점에 기초한 향찰 문제, 내용의 측면에선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고대인의 욕망인 투영된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와 자연에 대한 태도 - 특히 천상적 존재인 ‘달’ 등- 가 후동시대 그리고 자연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묻는 문제, 향가가 당대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의 반영으로 서정민요의 기본 형식인 2행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문학의 전통적 형식을 계승 발전 시켜왔다는 점을 ‘한국 문학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주로 존재론적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그렇다면 향후 향가에서 출제된다면 어떻게 있을까?

광의의 향가문학이란 관점에서 다루는 문제 - 삼국 시대의 모든 시가 문학을 ‘향가’라고 했을 것이라는 견해 - 와 각 작품을 외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 고대시거나 향가 문학의 주술적 성격과 이를 표현하는 구성방식이나 표현상 특징 문제,
2. 삼국 시대 부전가요와의 상관성,
3. 삼국유사에 실린 작품과 삼국사기에 실린 작품이 창작 동기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를 당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연결시킨다든가, 배경설화와 연관지어 묻되 이런 경향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주된 화제로 삼아 출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와 관련

1. 서동요 (주술적 성격 / 고전시가문학 파일 정리요)
2. 안민가 (배경설화, 시대적 상황, 창작동기 면에서 경기체가 중 상대별곡/악장 중 용비어천가 / 맹사성의 ‘강호사시사’류의 강호가도류 작품-고전시가문학파일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 ‘역군은어샅다’ 사동/피동 접미사에 반영된 표현전략 예) 소일^하음도, 알외^하리라, 물리조치사 등
3. 현화가 (이 파일에 정리된 내용 정리, 현대시가와와 상호텍스트성)
4. 처용가 (배경설화와 전승과정, 외국적 체제로 변화되는 과정 현대시가와와 상호텍스트성 : 주제/제재/대상에 대한 태도 : 김춘수 처용단장 등)

등들 위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05-[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6점)

(가) 善化公主隱 ①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②夜矣勿乙抱遣去如	— ‘서동요’
(나) 善化公主니른 눔 그스지 얼어두고 맛동바을 바리 물 안고 가다	(양주동 해독)
(다) 善化公主니리른 눔 그속 어러 두고 薯童 방을 바에 알홀 안고 가다	(김완진 해독)
(라) 가던 새 가던 새 ㉠보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청산별곡’ 제3장

21. 다음은 고대 국어의 고유 명사 표기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학생들에게 (가)~(다)의 제재를 활용하여 향찰(鄕札)의 표기 원칙을 지도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의 일부이다. 빈 곳에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2점)

단계	지도 내용
단계 1	(가)와 (나)를 대조하며 ㉠에서 훈차(訓借) 자와 음차(音借) 자를 구별해 보게 한다. •뜻만 빌려 쓴 글자의 예 : 他 密 嫁 置 •음만 빌려 쓴 글자의 예 : 只 良 古
단계 2	(가)의 ㉠에 한정하여 표기 방법을 선택하는 원칙을 추론하게 한다. •
단계 3	추론한 원칙에 따라 ㉡을 분석하게 하되,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다)를 비교하며 설명하게 한다. •‘ㄱ乙’의 ‘ㄱ’은 원전에서 판독이 명료하지 않다. (나)는 ‘ㄱ乙=卯乙’로 판독하여 음차 표기로 보고 ‘물’로 음독한 것이며, (다)는 ‘ㄱ乙乙=卯乙’로 판독하여 훈차 표기로 보고 ‘알홀’로 혼독한 것이다. •추론한 원칙을 따르지 않은 해독을 수용하는 것은 지금 전하는 향찰 표기 자료가 그 원칙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22. (라)의 ㉡을 중세 국어 문법과 현대 국어 문법에 따라 각각 분석할 때, 그 발화 주체와 행위 주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점)
•중세 국어 문법에 따라 분석할 때
•현대 국어 문법에 따라 분석할 때

23. <보기>에 제시된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라)의 ‘청산별곡’ 전부를 가창(歌唱)한 방식을 추론하고, ㉢의 가장 효과를 설명하시오. (2점)

< 보 기 > •전제 텍스트는 (라)와 동일한 형식을 갖춘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화자는 동일 화자가 아니고, 각 장에 표현된 화자의 정서는 서로 대립하거나 모순을 이루기도 한다.

Ⅰ 2005~21번해설 및 재구성 Ⅰ

고대국어의 표기원칙과 원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나)와 (다)의 해설을 학습자료로 탐구 학습의 절차에 따라 서술하시오

학습목표	고대국어의 표기원칙을 안다
설명하기	1) 고대국어인 향찰, 이두, 구결 가. 향찰의 개념과 표기원칙 ㄱ) 향찰에서의 음차, 훈차
시범보이기	(가) <서동요>를 바탕으로 시범보이기 ※ (나)와 (다)의 해석이 일치하는 부분
교수-학습활동	
문제제기	(나)와 (다)에서 <서동요>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가 (음차, 훈차)
가설설정	향찰의 표기원칙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가설의검증 및 일반화	1. (나)와 (다)의 해석상 공통점 2. (나)와 (다)의 해석상 차이점(3행과 4행) 3. 표기원칙(음차, 훈차)의 문제점
결론	향찰의 표기 원칙을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통합 - 국어사지식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	

※ 국어지식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고대국어표기/7차고등국어,국어가결어은길참고)

국어사	
문제제기	향찰의 표기원칙을 일반화하기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가설의설정	의미부는훈차,형식부는음차한다는향찰의표기원칙은재고되어야한다
가설의검증	양주동
	김완진
서동요 해석상의 차이점	
일반화및결론	고대국어를 연구할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향찰의 표기원칙을 일반화하는 것엔 무리가 따른다

□ 향가 표기 수단

고등국어 하권 ‘국어가 결어은 길’ - 한글의 우수성		
이두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치 (음차/훈차)		
향찰	이두	구결
향가	향약구급방 ...	임신서기석...

Ⅰ 2005~22-23번해설 및 재구성 - 속요 ‘청산별곡 해설’ Ⅰ

학습목표	문법	상황에 따른 어미의 기능과 의미를 안다
		문학의 다의성(Ambiguity -문법요소)
❏	문학	문학해석의 다양한 관점을 안다
		문학갈래의 전개양상과 향유방식을 안다
학습목표	통합	구비문학으로서의 속요의 속성을 안다 [구비문학의 특성 중 공동창작성이 초점]
22	문법 영역	의문형 종결어미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 ·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를 안다 · 어미의 주된 기능과 의미를 안다 [어미는 청자와 화자의 관계를 규정]
		속요의 갈래적 속성을 안다 · 구비문학으로서의 속요 (노래로 존재) [민요의 영향, 공동창작성]
23	문학 영역	· 분절체로서의 속요 (전절과 후절로 나눔) [전절:비극적상황, 후절:낙관적태도-유희요]
	고려사악지	❏ 모순된 상황으로 서로 다른 화자 (선후창)

청산별곡의 가정효과와 관련하여 [민요의 계승: 내용과 형식면에서] 문학사적 지식 : 서정 민요의 영향을 받아 속요가 탄생했다 • 민요의 개념 • 민요의 특성 1) 민중성 2) 민족성 3) 보편성 • 민요의 종류 1) 기능에 따른 분류 2) 가정방식에 따른 분류 • 구비문학인 ‘민요’엔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와 표현방식이 반영됨 • 정서: 이성을 통한 고차원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서의 ‘정서’ ➢ 해석적 표현 낙천주의적 세계관과 미래지향적 삶의 태도 (한희의 정서적 승화) ※ 어필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므로써 현실을 극복 [제념과극복]	
노래의 기능 : 고단한 현실에서 삶의 위안과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로 기능(유희요)에 따라 가정방식(선후창)을 달리한다 두산동아 하권 노동요의 기능을 정리할 것(공동체통합/단결)	
통합 - 문법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시어의 모호성(Ambiguity)	

고려 속요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구비문학으로 공동창작의 과정을 밟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문학해석의 4대관점에 근거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존재론적 관점이라는 제한된 해석의 관점 하에서도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문학(시)의 모호성’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기술문제 중 상장의 문제를 묻는 작품은 물론이고 ‘가시리’의 경우 행간걸림으로 인하여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지를 물었고, ‘청산별곡’ 문제에서도 ‘울어라’의 ‘-어라’를 어떤 문법요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시적화자와 대상의 동일성을 여부를 구별할 수 있음을 아는가라는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 시어의 다의성,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문학(시)의 모호성’ 일곱 가지를 철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론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자. 이 문제에서도 ‘어미’라는 문법요소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시어의 모호성(Ambiguity), 꼼꼼하게 정리해 두자

(2014년 A-기입형)

10. 다음은 고려 가요의 문학사적 이해를 위해 수업에서 활용한 작품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2점]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남꺠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텡터동성 어마님 꺠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남하 어마니 꺠티 괴시리 업세라	— 작자 미상, 「사모곡(思母曲)」
---	---------------------

<보 기> 김 교사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학사의 지속과 변이를 따라가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그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모곡」이 그 좋은 예이다 「사모곡」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전 시대의 (㉠) 와/과 같이 (㉡) (으)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 단락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 시대의 (㉢) 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 향가의 갈래적 속성과 미의식, 문학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불교적 세계관(내세사상) 주관적 관념론자인 귀족 언어적 관습 : 한자	승고미 고귀한 정신적 가치 추구 향찰(음차, 훈차)

□ 10구체 향가의 탄생

서정 민요	4행	8행	10행
2행 구조	·민요의 정착	새로운 시형식(정형식) 기, 서, 결 + 낙구 감탄사	

□ 향가의 형식상 특징과 영향의 수수관계 (서정시가의 전통)

10행 새로운 시형식(정형식)	영향의 수수관계 정형식
3구 6명 (최행귀) 3단(기/서/결) + 낙구 감탄사	3/6 - 감탄사 (매달을-시상반전,시상집중,통일) 시조기원 경기체가 정격가사

□ 이 노래를 시상 전개에 따라 단락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먼저 각 구의 화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을 수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화자가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작품의 장점이 되기도 한다. 우선 죽은 누이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월명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보자. 1구에서 8구까지 죽은 누이의 진술이라고 하면, 8구의 “가는 곳 모르온저.”라고 한 부분은 죽은 누이가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5구에서 8구까지를 월명사의 진술로 보면 월명사 자신이 죽은 자의 행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 된다. 화자의 판별 여부를 유보하고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종결되는 부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1구에서 4구까지, 5구에서 8구까지, 9구에서 10구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묶일 수 있다. 문장의 종결은 하나의 시상이 일단락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작품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화제 제시	→ 구체화 혹은 화제의 전개	→ 의미 부여
-------	-----------------	---------

□ 10구체 향가의 경우, 대체로 9행의 첫 부분에 감탄사가 나타난다. 향가의 낙구(격구) 첫머리에 사용된 감탄사의 역할을 ‘향가’의 갈래적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9구의 감탄사는 이전까지 전개된 사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시도하는 표지이다. 이 작품에서 모두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인간 세상의 논리로 설명하고 확정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아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표지의 기능을 하며 종교적 염원과 다짐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극복하려는 주제 의식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향가는 소위 4구체, 8구체, 10구체 형식을 갖는다고 한다. 4구체와 8구체에서는 시상의 정리와 마무리를 알려 주는 형식적 표지 기능이 사라질 수밖에 없으나 10구체는 대체로 9구 첫머리의 형식적 표지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조나 가사 등의 전통 시가 양식에서도 계승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2009 평가원 모의고사
25. (가)의 진술과 (나), (다)의 배경 설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나), (다)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한 지는 오래되었으니, 향가는 대개 『시경(詩經)』의 송(頌)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따금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 『삼국유사』 월명사 도솔가조(月明師兜率歌條)-

(나) 善花公主니몬 / 늣그스지 얼어두고 / 맛동바을 / 바뭇 몰 안고가다
(양주동 해독)
- 『삼국유사』 무왕조(武王條)-

(다) 네 식入물ᄌ 乾達婆이 / 노론 잣홀란 브라고 / 예入 軍 두 옷다 / 燧솔 𑖦 𑖦 이슈라 / 三花이 오름보샤을 들고 / 들두 브즈리 허렬바에 / 길빨 별 브라고 / 曄星여 술뿐여 사르미 잇다 / 아으 둘 아래 떠갬터라 / 이 어우 므스入 曄入기 이실꼬
(양주동 해독)
- 『삼국유사』 용천사 혜성가조(融天師曄星歌條)-

- ① (나)에서는 시적 화자의 지극한 정성에, (다)에서는 시적 청자의 신비한 신동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 ② (나)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의 일로, (다)에서는 현재 일어난 일을 당장 없어질 일로 규정했다.
- ③ (나)에서는 소망이 성취된 상태에 대한 기대감을, (다)에서는 현실의 질곡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현했다.
- ④ (나)는 ‘말이 씨 된다’는 속담과 같은 인식율, (다)는 ‘말이 말을 만든다’는 속담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삼았다.
- ⑤ (나)에서는 ‘천상-지상-인간’의 공간적 조율을, (다)에서는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조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했다.

고대시기에 나타난 주술적 성격(구지가) 참고

향가의 주술적 성격, '서동요'
□ 서동의 배경 설화와 관련하여 이 노래에 나타난 주술적인 성격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 노래의 배경 설화에 따르면 서동이 신화 공주와 혼인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퍼뜨린 노래이다. 그러므로 서동요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벌써 일어난 일인 것처럼 서술하여 실제로 일어나게 하려는 서동의 의도가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것이다.

□ 서동 설화에 나타난 신화적 성격에 대해 설명해 보자.
서동의 아버지는 연못 속의 용이라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못 속의 용이란 실제의 동물이 아니다. 또한 아버지가 용이라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 여기에는 후에 국왕에 등극한 서동의 출생을 신성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이 서동 설화가 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예성문제 □ 처용가 (향가/속요/처용무 - 김춘수'처용단장')

□ 〈처용가〉의 민족문학적 성격
현강왕이 개운포를 지나는데, 깜깜해지는 번개가 일자 그 자리에 절을 지어 주기로 하니 어둠이 가셨다. 이 자리에 절을 지으니 망해사이다. 동해 용왕이 이에 감상하고 자신의 아들인 처용을 현강왕에게 바쳐 서라벌에서 살게 되었다. 처용이 벼슬을 하고 있을 때 역신이 그의 아내를 범하여 이 노래를 부르니 역신이 감읍하여 처용의 상이 있으면 범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벽사(辟邪)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이나 지붕에 처용상을 붙이게 된 기원, 즉 문신의 좌정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 설화와 관련지어 작품을 읽어보자.
이 노래는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신라에 와서 벼슬을 하던 어느 날, 그가 늦게까지 놀고 있는 사이에, 역신이 매우 아름다운 그의 아내를 홀모하여 몰래 동침했다. 집에 돌아와 상황을 안 처용은 이 노래를 부르자 역신은 크게 감복하여 용서를 빌고 이후로는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로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귀신을 막았다. 이런 배경 설화를 가진 이 노래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축사(逐邪) 및 벽사진경(辟邪進慶)의 노래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역신이 처용의 태도에 감복하여 자신의 본체를 자백하고 퇴각한 내용과 관련하여 무속에서는 아무리 악신(惡神)이라도 즐겁게 하여 보낸다는 풍속과 한 국민의 여유에 찬 생활의 예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악신을 보내는 ‘뒤틀전풀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처용탈의 형상을 통해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이 될지 당시 신라의 상황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당시 신라는 당과 일본을 비롯하여 멀리 아랍과도 왕래하고 있었다. 처용탈의 생김새로 보아 오탁한 코에 큰 눈을 가지진 사람은 필시 아랍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880년경 개운포에 나타난 처용은 국내에 들어온 아랍상인 중의 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처용가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리가 가능하다.
신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아랍인 부호 처용은 신라 임금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 줘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용이 밤에 나가 즐겁게 놀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에게 역신이 침범하였다. 이에 처용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역신이 물러갔다.
이런 식으로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면 처용가는 역신까지 물리치는 신비스러운 힘을 지닌 외국인에 대한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마지막 행에 나타나는 ‘처용’의 심정을 추측해 보고, 처용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하시오

마지막 행에서 처용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아내나 그 사내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 이 때 처용의 심리는 슬픔과 체념, 그것을 극복하는 달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체념적 혹은 달관적 태도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관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처용에게서 용서하는 태도를 배울 수도 있으며, 처용의 태도를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아내와 그 사내를 꾸짖거나 처벌하겠다는 관점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 고려가요 〈처용가〉를 읽고, 〈처용가〉가 구비 전승된 과정을 추론하시오

향가 <처용가>는 향찰로 표기된 기록 문학으로서, 아내를 침범한 역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처용의 모습만을 형상화해 보이고 있다. 그것이 고려 시대로 이어지면서 향찰이라는 표기 형식 대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의 형태를 따르게 되면서 벽사진경이라는 민간 풍속의 의미가 보다 강하게 개입하게 된다. 즉 역신을 내쫓는 처용의 의미가 강조되어 축사신으로서의 처용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역신에게 관용을 베푸는 처용의 모습 대신 역신을 쫓아 내는 처용의 모습이 등장하며, 처용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하는 역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처용가>의 구비 전승에는 ‘벽사진경’이라는 처용의 역할이 세시 풍속을 통해 강화되었다고 하겠다.

예성문제 □ 향가 〈현화가〉와 서정주의 〈수로부인의 얼굴〉
예성문제: 두산동아 하권 문제정리요!

□ 〈현화가〉의 꽃, 소, 용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내포하는 의미는?

꽃: 감각적 아름다움
소: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제왕
용: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것의 보편성

이 작품은 탐미적인 미녀 앞에서 애정을 읊조린 서정시로 신라인의 미의식을 나타내 준다. 꽃을 향한 수로 부인의 정서와 미인 수로 부인을 향한 노동의 정서가 미의 상징일 수 있는 꽃에 수렴되기 때문이다.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붉은 바위와 손에 잡고 있는 암소와의 대조로 목욕에만 사로잡힌 인색함을 스스로 느낀 노동은, 숭고하리만큼 아름다운 꽃을 탐내는 절세 미녀의 탐미심 앞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대상에 투시하여, 미의 추구를 최고의 욕망으로 나타내었다. 그래서 노동은 자기의 탐미심도 만약 허락된다면 미녀에게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그의 감동된 심경을 노래한 것으로 신라인의 소박하고도 보편적인 서정시라 하겠다.

□ 서정주의 〈수로부인의 얼굴〉이라는 시와 관련하여 읽어보자.

- (1) ‘현화가’와 관련한 설화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은 누구인가?
노인과 순정공 일행, 용과 순정공 일행
- (2) 위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주제와 그 대상을 말해보자.
‘수로 부인의 얼굴’은 수로 부인의 미모를 대상으로 하여 그 아름다움을 찬탄하고 있다.
- (3) 두 작품의 세계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현화가’는 노동의 입장에서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는 내용이고 ‘수로 부인의 얼굴’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노동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칠 정도로 수로 부인의 얼굴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시이다. ‘현화가’가 당시의 사회적 신분 차이를 인정하며 그 행동을 노래한 것이라면 ‘수로 부인의 얼굴’은 사회적 신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 자체에 초점을 맞춰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작품 모두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되 각각의 시가 지어진 시대의 질서가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빚어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현화가, 해가 그리고 구지가의 배경설화	양주동 역
紫布岩乎允寸 希 執音乎手母牛放教遣 吾盼不諭懶盼伊賜等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딴배 바회 ᄌ희 자박은 손 암쇼 노히시고 나홀 안디 붓흐리샤든 꽃홀 짓가 받즈보리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붉은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농오라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나이다.	
*딴배 바회 : 자줏빛(붉은빛) 도는 바위 *붓흐리샤든 : 부끄러워하신다면 *꽃홀 : 꽃을	

김완진 역	
지뵈 바회 ᄌ새 자박은손 암쇼 노히시고, 나를 안디 붓그리샤든 고졸 짓거 바도렵다.	
자줏빛 바위가에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잡고 있는 암소를 농게 하시고,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純貞公)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러 가는 도중에 바닷가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천 길 벼랑 위의 바위 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공의 아내인 수로 부인은 크게 감탄하여, 누가 그 꽃을 자기에게 꺾어다 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엉뚱하고 다분히 어리석어 보이니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젊은 그의 종자(從子)들 중에는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 그해 소를 이끌고 가던 어떤 노인이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말한다. 이 노래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한 노인이 생명을 걸고 천 길 벼랑을 기어올라갔고, 용(龍)이 나와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갔으며,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온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거세게 항의했다. 미(美)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인격만이 참된 미를 알고, 그 미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종자(從子)들은 참된 미(美)를 알지 못했으나, 그 노인은 참된 미를 알았다. 여기서 우리는 신라인의 뛰어난 미의식(美意識)의 일면을 역력히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노인을 전설적인 인물로 보아 이 노래를 민요의 정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해가(海歌)	
龜乎龜乎出首露(구호구호출수로)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掠人婦女罪何極(악인부녀죄하극) 남의 아내 앓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汝若悖逆不出獻(여약패역불출헌) 네 만약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入網捕掠燐之喫(입망포략번지깃) 그물로 너를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삼국유사 권2>	
* 龜乎(구호) : 거북아. 龜(구) : 거북이 * 出首露(출수로) : 수로(水路) 부인을 내놓다. * 掠人婦女(악인부녀) : 남의 아내를 빼앗다. 掠(략) : 빼앗다 * 罪何極(죄하극) : 죄가 얼마나 큰가? 極(극) : 다하다. * 汝若悖逆(여약패역) : 네가 만약 거역하고. 汝(여) : 너. 悖(패) : 거스르다 * 不出獻(불출헌) : 바치지 않다. 獻(헌) : 바치다, 드리다 * 入網捕掠(입망포략) : 그물로 잡다. 網(망) : 그물. 捕(포) : 사로잡다.	

* 燐之喫(번지깃) : 구워 먹다. 燐(번) : 굽다. 喫(깃) : 먹다

구지가 계통의 노래로 신라 성덕왕 때 수로부인이 해룡(海龍)에게 잡혀 가자 남편인 순정공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렀다고 한다. 구지가가 오랜 세월 민간에 구비 전승되어 왔음을 확인해 준 노래이다.
거북을 등장시켜 소원성취를 비는 노래로, ‘해가사(海歌詞)’라고도 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순정공(純貞公)의 부인 수로는 그 미모가 뛰어나 깊은 산이나 큰 뭍을 지날 때에는 자주 신물(神物)에게 잡혀 가곤 했다.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해 가는 길에 임해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의 용이 나타나서 수로 부인을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사람들이 몹시 당황해 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순정공 앞에 나타나 “옛 사람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쇠도 녹인다고 하는데, 바닷속의 용인들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면 부인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순정공이 노인의 말대로 했더니 용이 수로 부인을 데리고 나와 도로 바쳤다고 한다.

이 노래는 그 내용과 주제가 ‘구지가’와 비슷한데 ‘구지가’는 건국 신화 속에 삽입되어 건국 서사시적 요소를 보이고 있는 신군(神君) 맞이의 주술요(呪術謠)라면, ‘해가’는 신라 시대 민간에 널리 전승되어 액(厄)을 막고 소원 성취를 비는 재액 극복의 주술요라 할 수 있다. ‘해가’는 ‘구지가’를 수로 부인의 경우에 알맞게 변용한 것으로, 결국 소원을 빌어 성취했다는 점과, 집단 가무였다 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다. 또 ‘구지가’와 같은 위협적인 주술요의 한 틀, 곧 ‘거북아, / -하라. / -하지 않으면 / 구워 먹으리.’가 오랜 세월 일만에 널리 관용되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성문제 □ 윤선도의 작품세계와 미의식

윤선도의 문학세계는 기본적으로 존재론적 관점에서 순수 국어의 탁월한 구사, 자연에 대한 태도와 미의식, 예술성을 획득하는 요소와 장치, 어부사시사의 경우 형식상 특성과 이런 형식을 취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민요 중 기능상 노동요라는 관점에서 가장방식과 효과, 호남가단의 표현상 특징을 계승한 부분 등이 출제될 수 있으며, 외재적 관점에서 유배문학적 특성과 시어의 상징적 의미, 미의식의 변화(우아미에서 비장미로), 상호텍스트의 관점에서 어부가와의 비교, 자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 등이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시가문학 파일을 먼저 읽고 다음의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 보자.

어부사시사

1. 작품 감상

***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발문(跋文)**

동방에 예로부터 어부사(漁父詞)가 있었는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옛 시를 모아서 곡조를 이룬 것이다. 이것을 읊조리면 강바람 바다비가 어금니와 뺨 사이에서 생겨나며, 사람으로 하여금 홀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러는 뜻을 갖게 한다. 그래서 농암(이현보) 선생도 좋아하여 싫증을 느끼지 않았고, 퇴계(이황) 선생도 탄식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음향이 서로 응하지 않고, 말뜻이 아주 갖추어져 있지 않음은 대저 옛 것을 모으는 데 엿매였기 때문에 응축한 흠을 면하지 못한 까닭이다. 나는 그 뜻을 부연하고 속된 말을 써서 어부사를 지었는데, 각각 1편으로 하고 그것을 10장으로 하였다

합격생이 추천하는 백한빛 선생님의 전설적인 명강의
2016시험대비 최종핵심이론정리
최종마무리합격특강
에듀한빛 www.eduhanvit.com
상담및수강신청 042/584-5331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는 효종 2년(1651), 작가 나이 67세 이후 전남 보길도의 부용동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으로 춘(春)·하(夏)·추(秋)·동(冬) 사계를 각각 10수씩 읊은 40수로 된 연시조이다. 춘사(春詞)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풍류 속에서 사는 은일 사상(隱逸思想)을 나타내고 있어, 강호한정(江湖閑情)을 즐기는 작가 자신의 유희자적(悠悠自適)하는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하사(夏詞)에서는 여름의 여름을 묘사하는 곳곳에 자연을 사랑하는 작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으며,

자연과의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 속에 살고 있는 어옹(漁翁)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추사(秋詞)에서는 어촌의 가을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강호에 몰입하여 기쁨을 느끼고 있는 자신에게 물목과 허영과 거짓으로 물든 속세는 멀리할수록 좋다고 하며,仙境(仙境)과 같은 가을의 경치를 묘사하였다. 동사(冬詞)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정계(政界)에 대한 작자의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각 계절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 생활의 흥취를 참신한 구어체의 시어와 다양한 시적 기교를 살려 표현하고 있는 시조 문학의 백미(白眉)이다.

2.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문학사적 전통

어부가(漁父歌) 작자 미상(고려) 한문 고시(古詩) 장가(長歌) 12장	⇒	어부가(漁父歌) 이현보(명종 때) 장가(長歌) 9장 연시조, 5수	⇒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윤선도(효종 때) 연시조, 40수
---	---	--	---	--

3.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후렴구

초장과 중장 다음에는 여음구가 있어 흥취를 돋우며 사실감을 부여한다. 중장 다음의 여음구[‘至지菊국戀총 至지菊국戀총 於어思스臥와(찌그당 찌그당 어여차)’]는 일정하나, 초장 다음의 여음구는 각 계절의 10수가 각각 다르다. 배의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순서로 매겨져 있다.

수	후렴구	수	후렴구	수	후렴구
1	빅 떠라 빅 떠라	2	달 드러라 달 드러라	3	돌 드러라 돌 드러라
4	이어라 이어라	5	이어라 이어라	6	돌 디어라 돌 디어라
7	빅 세여라 빅 세여라	8	빅 디여라 빅 디여라	9	달 디어라 달 디어라
10	빅 브터라 빅 브터라				

4. 작품 정리

- 작자 : 윤선도(尹善道：1587～1671). 호는 고산(孤山). 조선 중기의 시인, 문신.
- 연대 : 효종 2년(1651) 이후
- 갈래 : 평시조. 연시조(전 40수). 강호 한정가(江湖閑情歌). 정형시.
- 운율 : 4음보. 3·4(4·4)조.
- 표현
 - ① 참신한 구어체의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 ② 중장의 음수율이 평시조의 음수율(3·5·4·3)과 다른 음수율(3·4·3·4)로 되어 있다.
- >‘어부사시사’는 여타의 평시조와 비교할 때, 후렴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평시조의 기본 음수율을 지키면서도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중장 사이에 후렴구를 삽입함으로써 평시조에서 볼 수 없는 시조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초장과 중장 다음에 있는 여음구를 배치하여 작품에 흥을 돋우고, 내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 > ‘어부사시사’의 후렴구는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나는 소리를 의성어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재현, 또 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 과정에서 행동을 지시하는 말을 후렴으로 사용, 노 젓는 소리 등의 의성어는 경쾌한 음악성 및 노 젓는 상황의 구체적인 형상성을 높여 주는 역할, 행동을 지시하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흥에 겨워 즐기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하여 ‘어부사시사’의 흥취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어부를 모두의 것임을 생생하게 재연하고 있다
- ④ 대구법, 은유법, 반복법, 의성법 등의 표현 기교를 사용하고 있다.

- 구성방식

구분	중심 내용	구분	중심 내용
춘사 4	어촌의 아름다운 춘경(春景)	하사 2	소박한 어옹(漁翁)의 생활
추사 1	가을 강에 배 띄우는 흥취	동사 4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

- 제재 : 어부의 생활과 자연의 경치
- 주제 :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興)
- 출전 : 『고산유고(孤山遺稿)』

가 〈윤선도, 어부사시사〉나 〈김상헌, 남으로 창을 내겠소〉

> (가), (나)가 지어진 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각각 조사해 보자.

(가)의 시조는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성리학적 가치관을 그 주요한 문화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자연은 이른바 ‘도’의 구현체로서, 그 자연에 묻혀 즐기며 살아가는 삶은 벼슬길에 올라 임금께 충성을 다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 유학자들은 이 시조에서처럼 자연을 예찬하면서 그 속에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노래들을 ‘강호가도’라고 한다.

한편 (나)도 (가)처럼 자연 속의 삶을 예찬한다. 하지만 그 속에 성리학적 세계관이 뚜렷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는 각박한 현대인의 삶을 주요한 문화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곧 현대 사회의 인위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보다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낭만적인 욕망이 이 시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이 시가 전혀 전통적인 자연관과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인들의 낭만적인 욕망이 고전 사상 가운데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다시금 중시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원적인 문화적 배경은 보다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보편적 욕망에 있고, 부차적인 문화적 배경은 그 욕망에 따라 선택된 자연 친화적인 전통 사상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 때의 자연 친화적 사상이 반드시 성리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시의 마지막 연이 이태백의 시 <산중문답>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성리학보다는 도교적인 사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가), (나)의 주제 의식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해 보자.

(가)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깊은 흥’을 노래하는 데 그 주제 의식이 있다. 이러한 흥은 ‘연강절장’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혼연일체가 되는 데서 우리나라오는 흥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당시 사대부들이 성리학적인 세계관에 따라 가졌던 이상적인 삶에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데 이 시조의 주제 의식이 있다. (나)는 자연 속의 삶을 예찬하는 것은 (가)와 비슷하다. 하지만 자연 바깥의 인위적인 삶(구름이 꼬인디)에 대한 거부감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있다.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라면 현실에 대한 참여도 긍정적인 삶의 형태였겠지만, 이 시에서는 그것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나)에서는 (가)와 달리, 자연 속에서 노동하는 삶에 대한 예찬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또다른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가)의 시조가 자연을 감상하면서 차츰 혼연일체가 되는 구도를 취하고 있음에 비해 (나)의 시는 자연 속에서 노동을 통해 일체가 되는 구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작품의 화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여 보자.

- 1) 하2: 초장 다음에 이어지는 여음 달 드러라 달 드러라를 보면 연열에 뺨뺨만 뺨겨 들고 샷샷 도풍이를 입고 출범 준비를 마친 화자가 뱃을 올리고 배 위에서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갈매기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추2: 화자는 가을 바다를 헤엄치는 살이 오른 고기들을 바라보며 뱃을 올리고 있다. 넓고 맑은 바다에 배를 띄어 놓고 한참을 놀다가 육지를 바라보며 속세를 잊고 싶은 마음에 찾아 있다.
- 3) 동4: 이어라 이어라의 여음에서 보듯이 노를 저어 눈이 그친 겨울 바다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이 갠 후 근처의 완연하게 달라진 설경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는 화자의 모습을 추리해 볼 수 있다.

> 일반적인 어부의 이미지와 이 노래에 나오는 어부의 이미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보자.

일반적인 어부의 이미지: 생계 수단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므로 바다는 치열한 삶의 공간이지 풍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변화무쌍하고 거대한 바다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고기잡이를 통해 생활을 하는 어부의 모습은 건강하고 의지적인 삶의 주체하는 인상을 준다.

이 작품에서 어부의 이미지: 취미와 풍류로 한가하게 고기잡이하는 어부로서 고기잡이는 생계의 방법이 아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다의 아름다움과 주변 경치에 심취하여 여유롭고 한가한 마음으로 자연 속에서 지내며 즐겨워하고 있다. 번거로운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살면서 소일거리 삼아 하는 고기잡이이므로 낭만적인 풍류객으로 느껴진다.

〈어부가〉

> 이 시조에서 시적 화자가 ‘세상’과 ‘산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인세를 다 나뒀거니 날 가는 줄물 안가’에서 화자가 자연을 벗삼아 노닐면서 인간 세상을 다 잊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흥에 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다음 수의 중장에서도 ‘심간홍진’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연에 대해서는 친화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 속에서 유희자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은 ‘시름 업스니’나 ‘심장홍진이 언제나 ㄹ렛노고’ 등 제시된 시조의 전반에 걸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문학 현상이 생기게 된 시대 상황과 문화적 분위기에 대해 말해 보자.

조선 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사림파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근거인 향리를 중심으로 하여 가사와 시조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들은 향리로 물러나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고 사람들과 교유하는 과정에서 시조와 가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문학 현상 역시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어부사시사와 어부가의 차이점, 형태 및 주제면에서】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는 효종 4년(1653), 작가 나이 67세 이후 전남 보길도의 부용동(芙蓉洞)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으로, 춘하추동 네 계절을 각각 10 수씩으로 읊은 40수로 된 연시조이다. 고려 때부터 전하여 온 ‘어부사(漁父詞)’를, 명종 때 이현보(李賢輔)가 ‘어부가(漁父歌)’ 9장으로 개작하였고, 이것을 다시 고산이 후렴구만 그대로 넣어 40수로 고친 것이다.

이현보의 어부가에서 시상(詩想)을 빌려 왔다고는 하나, 후렴구만 떼고 나면 완전한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지니면서 완전히 새로운 자기 언어로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어 고산의 국문학사에서 지니는 위치를 점쳐볼 수 있게 된다.

이현보가 살았던 16세기는 정치적으로 당쟁이 있었던 혼탁한 시대였다. 그래서 시적 자아는 강호에 있으면서도 정치 현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안주할 수 없었기에, 강호의 삶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지나친 자연미에 대한 탄상이나 감흥은 스스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윤선도가 살았던 16세기 말 ~ 17세기의 강호 시가는 사람의 정치적 승리 이후 이념의 도덕적 변별 가치가 약화되고, 정치적 쟁투에 혐오적인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그렇기에 ‘어부사시사’와 같은 강호 시가는 현실 정치의 혼탁함으로부터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심미적 공간과 흥취의 공간을 노래하고 있다.

〈윤선도, 견회요〉

> ‘시내’‘기러기’등이 암시하는 바를 생각해 보고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시인의 정서를 상상해 보자.

시내: 처해있는 상황: 임금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임
정서: ‘시내’를 통해서 임금님께 심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계속 충성을 하겠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시냇물이 ‘울면서’간다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마음을 풀라주는 임금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를 담고 있다.
기러기: 처해있는 상황: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작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존재
정서: 형제들과 떨어져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이 시조에서 각 수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을 파악해 보자.

- 첫째 수 :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겠다는 의지
- 둘째 수 : 충심을 알아주지 않는 데에 대한 원망
- 셋째 수 : 심 없이 끝없는 충성을 다짐
- 넷째 수 : 부모님을 그리워함
- 다섯째 수: 충과 효의 일치

시상 전개 방식: 이 시는 시인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연물에 자신의 심사를 기탁하고 있다. 또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충성과 효도에 대한 개별 진술 뒤에 이를 통합하는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윤선도, 잔 들고 혼자 안자 (만흥 中)〉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허랴
말씀도 우움도 아녀도 못내 도하 흐노라.

> 이 시의 중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시적 자아는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 중 어디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시적 자아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도 없고 웃음도 없는 산의 모습에서 의연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인간 세계보다 자연 세계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시조에서는 ‘먼 산’을 ‘그리던 님’에 비교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산’의 구체적 형상을 중장에서 찾아보자.

말 없는 말을, 웃음 없는 웃음을 이심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의연하고 미더운 모습이다.

〈윤선도, 보리밥 풋느물을 (만흥 中)〉

> 이 작품에서 화자는 안빈낙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때 ‘빈’과 관련 깊은 시어를 모두 찾아보자.

이 작품에서 작가는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빈낙도의 정신과 일치한다. 이러한 안빈낙도의 정신은 뒤집, 보리밥, 풋느물, 등의 소재를 통해 잘 구현된다.

> 이 작품에서 다음 구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 보자. -그나쁜 녀니쁜 일

2수에서 말하고 있는 그나쁜 녀니쁜 일이란 작가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벼슬 길이다. 작가는 벼슬과 관련된 현실에 무심하며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다.

> 윤선도의 시조가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말해 보자.

윤선도의 시조는 조선 전기에 이어 우리 시조의 아름다움을 완성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살린 시어를 사용하고, 형식 면에서도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다. 즉 어부사시사의 경우 후렴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성을 높이는 동시에 흥겨움을 부여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조 윤선도 만흥〉

> 이 시조에서 시인이 느낀 바와 품고 있는 생각을 대표하는 어절을 찾아 보자.

우선 제1수 초장에서 시인이 변화한 곳이 아니라 산수간 바위 아래 피집을 짓겠다고 한 부분이 이 시의 주제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 스스로를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장에서 시인이 권력 지향적인 세계관을 지닌 부류와 다르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제2수 중장을 보면 자연을 완상하면서 한가롭게 거니는 정경을 통해서 시인은 그 밖의 세상일에 대해 부러울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인의 세계관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 3수에 서 먼 산을 한가롭게 술을 마시면서 바라보고, 마치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 듯이 좋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시인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엿 볼 수 있다.

➤ 종합

강호의 의미와 윤선도의 시조들

위의 출제 예상항목과 관련, 해당 정보를 발췌할 수 있도록

1. 시조 시인 윤선도를 찾아가는 여정

자연이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시적 대상으로 떠오르는 시기는 조선전기이다. 이때부터 사대부들은 늘상 강호에서의 삶을 동경하면서 강호가 매개된 생활의 형상을 시조나 가사와 같은 국문시가를 통해 노래했다. 이 경우 사대부들은 자연의 경관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표방하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념을 자연의 물상 속에 적극 투사하기 시작한다. 인간과 세계의 관계망과 여기서 비롯된 인식의 문제가 강호 혹은 전원의 공간에 포치된 자연의 물상에서 탐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강호의 의미는 시인의 경험과 해석의 편쪽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게 된다. 강호자연은 곧 사대부들이 동경하는 정신적 경계이고 심미의식의 표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국문시가 작품들은 인똥 보기에 모두 비슷한 강호의 생활을 노래한 듯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선조 유자들은 출사하여서는 경제제민을 위해 힘쓰고, 물러나서는 강호에 들어가 안빈낙도의 도리를 닦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경륜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의 부침이 심했으므로 반사적으로 강호에 대한 조화를 더 동경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일반적으로 시가 작품에는 출사(벼슬살이)라는 삶의 대척 지점에 강호자연의 세계가 설정되고, 시적 화자는 순정하고 한가로운 강호의 세계에 동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시인의 개성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오늘날의 시전에서 이들 작품을 대면할 때 여기저기 널려있는, 엇비슷해 보이는 한가로운 강호 풍경만이 시야를 어지럽힐 뿐이다. 변별이 안되니 옛날의 시는 맨 달타령, 냇물타령, 어부타령만 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찌 이토록이나 열렬히 그리고 꽤 오랫동안 강호와의 조화를 꾀하는 노래를 구가했을까 하는 점이 오히려 궁금해진다. 우리에게는 고정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조선조 시인들이 그토록 몰입하며 저마다 강호를 의미화한 동기는 무엇일까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문에 잇दै어 우리에게 강호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해준 시인이 누구였는가에 관심을 옮기다 보면, 강호 속에 녹아 있는 시인의 자의식에 흥미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결국 시인의 자의식에 따라 변별되는 강호의 의미를 새삼 다시 들추게 된다.

이런 노점에서 떠오르는 시인의 한 사람이 윤선도(尹善道：1587～1671)이다. 그의 작품은 대다수가 강호의 경물을 구현하거나 의미화하는 데 치중해 있다. 윤선도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동시에 손에 꼽힐 정도로 탁월한 시조 시인이다. 그의 시조 작품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보아도 미적 표현이나 언어 운용의 면에서 가장 빼어나다고 찬탄을 받는다. 그런 까닭에 윤선도 작품을 따라가는 길은 시가사의 핵심적 주제인 강호자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시가문학의 실체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강호의 의미가 시인의 정신사적 궤적과 생애의 편쪽에 따라 다채로운 양상을 띠는 바, 윤선도 작품의 개성 또한 강호의 영역 안에 굴절된 현실인식과 그 대응 방식에서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선도가 살았던 17세기는 붕당정치의 시대이다. 복인과 서인이 실권을 다투던 시기에 윤선도는 정치적으로 열세에 놓였던 남인에 속했다. 윤선도는 경제적 실천을 위해 현실정치에의 참여를 강력하게 지향하면서, 순탄치 않은 인생 역정을 거쳐 나갔다. 남인의 세력 확장을 위해 왕권의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정치를 주도하던 복인·서인과 대결하면서 여러 번 낙척하거나 유배를 경험했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정치적 행로도 이와 비슷하지만, 윤선도는 강렬한 정치 지향성을 보이며 그 누구보다 부단히 출사와 유배, 은거를 반복하였다. 윤선도의 시조 작품은 모두 유배와 은거의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단시조 9편, 연시조 8편 등 17편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작품 하나하나는 바로 이런 정치적 시련기에 대응했던 자의식의 파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파편들을 좇아 시인의 문학적 지향이 무엇인지 들추어 낼 차례이다.

2. 출발, 주체의 태도와 현실 인식：〈견회요〉(遣懷謫)·〈우후요〉(雨後謫)

윤선도는 광해군 8년(1616) 그의 나이 30세에 대북파의 거두 이이첨(李爾瞻)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다. 광해군의 측근에서 전횡을 일삼는 복인들을 강경하게 비판하면서 윤선도는 정치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항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 일로 함경도 경원과 경상도 기장으로 7년 간 유배된다.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치 참여라는 경제에의 지향을 버리지 않는 바, 이 때 지은 시조 <견회요> 5수와 <우후요> 1수는 이런 현실 지향 의식을 드러내 준다. <견회요>는 유배지에서 왕과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토로하면서 변함없는 戀君의 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조는 유배된 자의 슬픔을 담으면서도, 화자의 의지는 상당히 견결한 자세로 일관한다. 즉 <견회요> 1장에서는 "슬프나 즐거우나 울다하나 외다하나 / 내 몸의 하늘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이라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갈고 닦을 뿐이라는 강인한 의지를 표명한다. 일관되게 자신을 닦아 나가겠다는 화자의 올곧은 태도는 윤선도 시조의 전반에 등장하는 주체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주체에 대해 이렇게 인식하기에 <견회요> 2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전적으로 임금을 위한 일이었으니 다시 해아려 달라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라도 님이 해여 보소서 <견회요> 2장

자신의 망령되고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임금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한 데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옳았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자는 임금을 위한 행위를 옹호함으로써 은연중 그 대척되는 지점의 현실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은연중에 암시된, 임금을 위한 이상적 정치와 부정한 현실 정치라는 두 개의 대비되는 세계는 <우후요>에서 우의적 수법에 의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궂은 비 개단 말가 흐리던 구름 건단 말가
앞내에 깊은 소이 다 맑았다 하나산다

진실로 맑기곳 맑았으면 갓끈 찢어 오리라

<우후요>는 유배 중 한 재상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소식을 듣고 쓴 작품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장마비도 함께 그치는 것을 보고, 자연현상에 현실을 우의하여 쓰게 되었다고 한다. 재상의 허물은 곧 현실 정치의 파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우의하는 자연은 궂은 비, 흐린 구름, 탁한 연못이다. 이런 자연의 물상이 정치현실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맑은 물에 갓끈을 찢겠다는 고사가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맑은 연못은 깨끗해진 조정이요, 곧 윤선도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치 상황인 것이다. 이 맑은 연못에 갓끈을 찢겠다고 한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이니, 경제적 지향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느끼게 한다. 이처럼 윤선도는 당시 실제적인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왕을 중심으로 한 공평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하여 경제적 실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출발선상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은 윤선도 작품의 전반을 지배한다.

3. 탈출, 자연 그 아름다운의 발견：〈산중신곡〉(山中新曲)·〈산중속신곡〉(山中續新曲)·〈어부사시사〉(漁父時謫詞)

윤선도는 인조반정(1623)으로 대북 정권이 몰락하자 긴 유배에서 풀리게 된다. 서인이 득세하던 시기라 남인이었던 윤선도는 곧바로 출사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나이 42세 때 장유(張維：1587～1638)의 도움으로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에 제수되어 중앙정계에 진출한다. 이후 공조좌랑·한성부윤·예조정랑 등의 요직을 거쳤으나 다시 정적들의 미움을 받아 48세이던 1634년 성산 현감으로 좌천되고 얼마 후 파직되어 고향 해남으로 돌아온다.

해남에서 1년 정도 지낸 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이끌고 강화 근처까지 올라왔으나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뱃머리를 돌려 제주도로 향한다. 도중에 전남 완도의 보길도를 발견하고는 이 섬의 경치에 반해 은둔한다. 그러나 이 일을 기화로 모함을 받고 경상도 영덕에서 1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 풀려나 이후 약 13년 간을 해남의 금쇄동과 보길도의 부용동을 오가며 은둔 생활을 한다. 해남과 보길도에서 은둔하는 시기에 윤선도 최고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시조들이 나오게 된다.

해남의 금쇄동에서 <산중신곡> 19수, <산중속신곡>2수, <증반금〉(贈伴琴)1수, <초연곡〉(初筵曲)2수, <파연곡〉(罷筵曲)2수를 지었고, 65세 되던 1639년에 보길도의 부용동에서 <어부사시사> 40수의 역작을 지어내었다. 이들 작품은 유배 시절의 작품과 달리 강호자연의 세계를 발현하는데, 금쇄동과 부용동이라는 아름다운 실제의 경물로부터 체화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남 금쇄동에서 지은 시조들은 대체로 현실을 직접적으로 의미화하지 않는다. 반면 안빈낙도를 표상하는 강호 생활의 구체적이며 소박한 심상들을 통해 화자의 자각성을 강조시킨다. <산중신곡> 중 특히 "만홍(漫興)" 6수는 소박하고 순수한 강호 공간에서 안빈(安貧)의 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자의 자족적 심리상태를 드러내 준다. 남들은 비웃지만 다들 이 없는 강산에서 임천한홍(林泉閑興)을 만끽하는 삶의 태도는 유자의 도덕적 생활 방식에 다름 아니다. 윤선도는 강호가도의 삶을 추상화하면서도, 그가 그려내는 강호 생활의 어휘들은 일상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생동하는 느낌을 준다. 예를 들면 보통 "단사표음(簞食瓢音)"으로 표현된 안빈의 구체상을 "보리밥 꽃나물을 알마초 머근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술가지 노니노라"("만홍" 2장)라고 표현하거나, "잔들과 혼자 앉아 먼 땀을 바라보니 / 그리던 남이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 말쯤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와 같이 먼 산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감각적이고 비유적으로 그려낸다. 이것이 윤선도가 보여주는 강호 표현의 특징이다.

그러나 윤선도가 표현하는 강호는 위와 같은 면에서도 주목되지만, 자연에서 부정적인 심상과 긍정적인 심상을 구분해 내는 데서 특별함을 갖는다. 이런 물상을 설정하여 시인은 그 정신경의 한 지점을 반영한다. <산중신곡>의 "조무요(朝務謫)"와 <산중속신곡>의 "추야요(秋夜謫)"에 사용된 안개나 창승(蒼繩)과 같은 자연물은 실제적으로 천왕제일봉을 가리거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간신을 우의하기도 한다. 이럴 때 안개나 창승은 간신으로 대변되는 정치현실을, 천왕제일봉과 같은 물상은 왕을 가리키는 비유가 된다. 이를 보면 자연에 몰입하면서도 현실에 미련을 두는 시인의 태도가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현실 정치를 거부했지 경제의 실천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윤선도에게 현실정치에 대한 대결의식은 그만큼 강고한 것이기에 강호와의 조화를 철저히 추구하는 동시에 자연 안에 서 더 가치롭고 의미있는 세계를 변별하려는 의식을 갖게 된다. 현실이 경륜을 펼치는 일을 방해하므로 오히려 자연에서 이런 이념을 지키고 실현하려고 했다. 따라서 윤선도는 자연을 더 분할하고 차단하여 긍정적 영역을 설정하고는 이를 견고한 이념성으로 해석하는 특이한 태도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산중신곡>의 "오우가(五友歌)"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오우가"에서는 변해가는 자연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고의 가치로 보고,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을 이상적 자연으로 생각한다. "종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 뿐인가 하노라", "아마도 변치 아닐 손바위뿐인가 하노라",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난다", "저랑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 하노라", "밤중의 광명이 너만한 이 또 있는가 / 보고도 말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와 같이 시적 자아는 각각의 자연물이 지닌 항구적인 속성에 기대어 영원불변하며 의연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다. 이것은 시적 자아가 체화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또한 사회가 지켜야 할 규범적 덕목이기도 하다. 시적 자아는 비록 이상적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지만 더 엄격한 이상 사회의 규범을 간직한 자연에 합일함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금쇄동의 자연에서 <산중신곡>을 남겼던 시인은, 보길도의 부용동에서 <어부사시사> 40수를 지어 한층 고양된 심미의식을 확보한다. 이 작품은 시조 형식과 흡사하면서도 출항부터 귀선까지의 과정을 의미론적으로 담아낸 실사 여음을 삽입하고 있어 시조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어부사시사>는 전체적으로는 춘하추동의 사시에 각기 10수씩을 배치하였으며, 각 편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시간적으로는 각 편의 전반부(1～5)와 후반부(6～10)가 낮과 밤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며, 공간적으로는 물과 땅으로 대칭된다. 강으로 뱃놀이 나아갔다가 육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느끼는 강호의 풍광과 흥취를 계절적 상황에 맞추어 형상화하였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윤선도는 강호를 강고하고 순연한 공간으로 설정한다. <어부사시사>에서도 강호는 현실에서 벗어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애써 차단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물가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씹씩하고

배매여라 배매여라

머흔 구름 한 지 마라 세상을 가리온다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파랑성을 엮 지 마라 진회를 막는도다 <어부사시사 동> 8수

위 시조의 시적 화자는 물가의 씹직한 소나무에서 자연의 이상을 발견한다. 항구적이며 엄정한 규범성을 가진 강호는 시적 화자에게 기쁨과 긍정을 안겨 준다. 그런 영역이기에 구름과 파랑성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세상과 진현으로 비유되는 현실과 완전히 차단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어부사시사>에서 현실은 창승, 모기, 상대부와 같은 모리배들이 판치는 부정적 정치세계이기 때문에 강호와 철저히 대립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윤선도는 "인간을 돌아보니 머도록 더욱 좋다"고 인식하며, 강호에 침잠하였던 것이다.

<어부사시사>는 뱃놀이하며 강호의 경물을 즐기는 기쁨과 흥취가 주된 정서를 차지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 어느 작품보다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우는 것이 빼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 숲인가", "단애(丹壁) 취벽(翠壁)이 화병같이 둘러난데",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치며 걸어 가자" 등등에서 시각과 청각을 대비하거나, 색채 대비를 통해 생생한 동적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처럼 두드러지게 <어부사시사> 곳곳에는 구체적이고 즉물적이며 감각적으로 경물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다. 자연세계가 벗어난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아름다움이 매우 섬세하게 포착되고, 거기에 몰입하는 시적 화자의 흥겨운 자못 고조되어 있다. 이처럼 <어부사시사>는 이전의 강호자연에서 성취하지 못한 감각적 재현과 도취적 흥취를 확보하여 표현의 진폭을 넓혔다.

4. 변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상 - 〈몽천요〉(夢天謫)

윤선도는 봉림대군(효종)의 즉위로 다시 출사할 기회를 얻게 된다. 봉림대군은 스승인 윤선도를 성균관사에 제수한다. 정적들의 견제에 심하자 양주 고산에 머무르며 <몽천요> 3수를 짓는다.

<몽천요>는 우의적 수법으로 현실을 비유한다. 적선(謫仙)인 시적 화자가 백옥경을 찾아 가자 옥황은 반기지만 군선(群仙)들은 반기지 않고, 옥황은 웃으니 군선들은 꾸짖는다는 내용이다. 백옥경은 궁중, 옥황은 임금, 군선은 간신배를 우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효종이 윤선도를 인정하고 불러 들이려 하지만 조정의 신하들이 이를 견제하는 현실이 그대로 투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선도의 강렬한 정치적 지향은 30세로부터 66세의 그 날까지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몽천요> 2수에서 백만억 창생을 제도할 길을 물으려 했다고 한 바, 경제제민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은 지칠 줄 모르고 지속되었던 것이다. 윤선도의 특이성은 아마 이 지점에서 찾아야 하리라. 16세기 이전보나 이황이나 이율곡 등은 출사해서도 즐기차게 귀재래를 지향하며 사직을 하는데, 윤선도는 많은 정적에 둘러싸여 뜻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기차게 출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한 번도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6세기와 17세기가 그 역사적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윤선도의 처신은 남다른 면이 있다.

윤선도의 시가문학은 삶의 격랑기 때마다 쓰여졌다. 현실에서 좌절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넘쳐나는 사회적 욕구가 시를 만들어 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회적 열망은 여과되거나 굴절되지 않고 곧장 문학화되기도 했고, 강호자연이라는 문화적 틀 안에 투사되기도 하였다. 윤선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가치로운 것은 이상적 사회질서의 실현이라는 신념을 문학화하면서도 교화적 관념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자연을 선행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범주화하면서도 감각적이고 즉물적인 인상을 포착하여 참신하고 다채로운 표현의 영역을 개척해 나갔다는 점이다.

일과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백한빛 선생의 최종마무리특강 - 고전시가 기출해설 및 예상문제

꿈은 고향으로 가지마는 나는 어이 못 가는가.

꿈아 너는 어느새 이 고향 갔다 왔느냐
집안에서 원머리를 한 양친은 건강하 시며,
규방에 있는 예쁜 아내, 그리고 자식과 어린 동생과 모든 집안 사람들 은 다 태평하더냐?

태평하기는 태평하더랴만
네가 아니 온다고 근심이더라.

- 주 제 : 고향을 그리는 마음(首邱初心)
- 이해와 감상 :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며 오직 갈 수 없는 신세를 안타까워 하는 한편, 밤마다 찾아가는 꿈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다. 고향을 찾아가л 수 없는 몸이라 밤마다 찾아가는 꿈에게 고향의 백발 부모와 흥안처자와 어린 동생과 가내제절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에서 思郷(사향) 歸心(귀심)의 주제성 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귀소리 저 귀소리

귀소리 저 귀소리 어엿부터 저 귀소리,
어인 귀소리 지는 들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節節(절절) 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리 네어 紗窓(사창) 여원
좁은 슬쁘리 도 썩으노고야.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 리는 너뿐인가 호노라.

— 〈병와가곡집〉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찌 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저 혼자 계속 울어, 비단 창문 안에 살쾅 든 잠을 잘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가 비록 작은 벌레지만, 외로워 잠 못 이루는 내 마음을 알 이는 너(귀뚜라미)뿐인가 하노라.

- 표 현 : 의인법, 반복법, 감정 이입
- 주 제 : 독수 공방(獨守空房)의 외로움
- 이해와 감상 : 평민층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설 시조는 임과 이별한 여인의 외로움을 귀뚜라미에 의탁해서 노래하고 있다. 긴소리, 짧은 소리로 절절이 슬프게 우는 귀뚜라미 소리에 대한 청각적 심상의 활용을 통해, 깊은 밤 독수 공방하며 짙은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애절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여원 좁은 슬쁘리도 썩으노고야’라는 감정 이입에 의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임을 향한 그리움으로 잠 못 들고 전전 반측(顛轉反側)하는 화자의 심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되헤 매게 쪼친 가토 안과,
大川(대천) 바다 한가운데 一千石(일천 석) 시른
빅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충도 근코 뒛대도 겹고
치도 썩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안기 뒤섯게 즈자친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천리만리)
나쁜디 四面(사면)이 거머어둑
저릇 天地寂寞(천지 적막)
가치노을 썰느니,
水賊(수적) 만난 都沙工(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원 내 안희야
엇다가 𠆒을호리오.

— 〈청구영언〉

나무도 바윗들도 없어 몸을 숨기기 곤란한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넓고 큰 바다 한가운데 곡식을 일친 석이나 실은 배가 노도 잃고 닛도 잃고
뚝줄도 끊어지고 뚝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자옥한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았는데
사방이 검어 어둑어둑
저물고 천지가 적막하며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적 만난 사공 우두머리의 마음과,
엇그제 님을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는가(내 마음이 훨썬 더 참답하다).

- 성 격 : 별한가(別恨歌), 이별가(離別歌)
- 표 현 :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 주 제 : 사랑하는 임을 여원 견잡을 수 없이 절절한 심정
- 이해와 감상 : 임을 여원 허전함과 어찌할 도리가 없는 아득한 정상(情狀)을 까투리와 도사공(都沙工)을 끌어다 표현하였다.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의 답답한 심정과 사면 초가(四面楚歌)의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사공의 모습을 제시한 다음, 자신의 마음은 그들보다 훨썬 더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중장에서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극한적 상황을 나열하면서 내용면으로는 점층적 구성으로 절박감을 더해 주고 있다. 해학적 표현 속에 비장감(悲壯感)이 감돈다.

장별	삽안	구체적인 내용
초장	까투리의 마음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참답한 마음
중장	도사공의 마음	파선 직전에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절박한 마음
종장	나의 마음	임을 여원 처절한 심정

■ 이 시조는 임을 사별한 슬픔의 절박함을 다양한 비교, 대조와 열거의 방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임을 사별한 화자의 절박함은 매에서 쫓겨 죽어갈 듯한 까투리의 절박함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크며, 큰 바다 가운데에서 방향을 잃은 데다가 큰 파도와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절박함과 같거나 더 큰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설상가상식으로 이어지는 난관의 연결은 다분히 과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과장은 임을 잃은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이 시에 사용된 표현은 중장으로 집약되면서 화자의 절박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 이 시조의 **화자와 한용은 〈님의 침묵〉의 화자의 심리 상태를 비교하여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자.**

사설시조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을 여원 심정을 목숨이 경각에 달린 까투리나 도사공의 경우보다 더 참답하다고 하여 절망적인 슬픔에 빠져 있다. 반면 님의 침묵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은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이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을 가짐으로써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두 작품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슬픔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다. 후자의 화자는 슬픔을 극복하고 있어 슬픔에 빠져 있는 전자의 경우와 슬픔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차이가 있다.

논발 갈아 기을 매고

논발 갈아 기을 매고
뽕잠방이 다임 쳐 신들메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메고
무림 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썩을 뵈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습 부시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뉘담배
튀어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주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

— 〈청구영언〉

논발 갈아 김을 댄 후 배잠방이 대넌 쳐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들메끈을 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날카롭게 만들어
들러메고,
나무가 울창한 산 속에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나무를 베고
잘라 지게에 짊어
작대기 받쳐 놓고,
쌈을 찾아가서
점심으로 다 비우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있담배 피워 물고
코노래 부르며
졸다가,
석양이 고개를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떻게 갈까 하더라.

- 성 격 : 한정가, 전원적, 사실적
- 주 제 :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삶
- 작품 해설 : 농부의 일상사를 있는 그대로 그려 낸 작품으로, 논밭에 김을 댄 다음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여 지게에 짊어지고, 지팡이 받쳐 놓고 쌈을 찾아가 점심 도시락 먹고, 있담배 피우고 졸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하층 농민의 생활에서 우리나온 사실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반영된 시조는 그리 흔치 않다. 힘들고 고된 일 가운데서도 긴 소리 짧은 소리로 흥을 돋우는 농부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낙천적이고 풍류적인 성격(性情)을 잘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님이 오마 하거늘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중문) 나서 大門(대문) 나가
地方(지방) 우희 치드라
안자 以手(이수)로 加額(가액)
호고 오논가
가논가 건넌 山(산) 브라
보니 거머 들 서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심 버서 손에 쥐고
곰비님의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즌 뉘
믄른 뉘
굴회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情(정)엿말 호려
호고 겹눈을 흘 보니
上年(상년) 七月(칠월)
사흔날
굴가 벽
긴 주추리
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겨다.

모쳐라 밤일 만정
형어 낮이런들
늬 우일 번 호쾌라.

— 〈청구영언〉

임이 오겠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손을 이마에 대고
임이 오논가 하여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무회흑한 것이 서 있기에
저것이 틀림없는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엎치락뒤치락 허둥거리며,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탕 건너가서,
정이 넘치는 말을 하려고
결논으로 홀깃 보니,
작년 7월 3일날
결절을 벗긴 주추리
삼대가
알 뜰하게도
나를 속였구나.

마침 밤이기에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하였구나.

- 성 격 : 해학적, 과장적
- 주 제 :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 이해와 감상 : 그리워하는 임을 어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해학적으로 잘 표현한 시조이다. 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밥까지 일찍 지어 먹고, 안절부절 기다리다가 삼줄기를 임으로 착각하고 속은 것에 낭패스러워 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두터비 꾀리를 물고

두터비 꾀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건넌 山(산) 브라보니
白松骨(백송골)이 썬
잇거늘
가슴이 금즉
호여
폴덕 썬여
내뒛다가
두힘 아래
바지거고

모쳐라 늘넌
넌 만정
에헐질 번호쾌라.

— 〈청구영언〉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기에
가슴이 섬뜩하여
필쩍 뛰어 내
단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그리고는 하는 말이)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다쳐서
멍들 뻔하였구나.

- 성 격 : 상징적, 풍자적, 회화적
- 주 제 : 양반들의 허장성세(虛張聲勢)와 세태 풍자
- 이해와 감상 : 두꺼비, 파리, 백송골 등을 의인화하여 약육 강식(弱肉強食)하는 인간 사회와 양반들의 비굴하고 허세에 찬 모습을 풍자한 노래이다. 여기에서 ‘두꺼비는’ ‘양반 계층’을, ‘파리는’ ‘서민 계층’을, 그리고 ‘백송골’은 ‘강한 외부 세력’을 상징한다. 따라서 양반이 평민을 괴롭히다가 강한 세력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황급히 파려라다 실수를 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피하는 모습을 우화적 수법으로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당시 특권층인 양반들의 횡포에 시달림을 받는 민중들은 그것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폭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풍자적인 수법을 통해 지배 계층을 꼬집고 회화화시켜 울분을 해소시켰던 것이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와 대상에 대한 태도와 정서 표출 방식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

두 시조는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회화화를 통해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는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진술로 행동을 관찰하여 묘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풍자를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매들에 동난지이 사오’는 대상과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직접 언술함으로써 풍자하고 있다.

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화 그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 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 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으스스
호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것이라 호렘은.

— 〈청구영언〉

여러 사람들이여 동난젧(게젧)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밝은 단단하고 얇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기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하는 동난젧 사오.
장수야, 너무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것이라 하려무나.

- 성격 및 표현 : 해학적, 대화체, 둔호법
- 주 제 : 서민들의 상거래 장면
- 이해와 감상 : 서민적 감정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 있는 이 노래는 게 장수와의 대화를 통한 상거래의 내용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중장에서 '게'를 묘사한 대목은 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표현으로 사실 시조의 미의식인 해학미(諧謔美) 내지는 희극미(戲劇美)를 느끼게 하며, ‘아스스’와 같은 감각적 표현은 한결 현실감을 더해 준다. 시정(市井)의 장사꾼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상거래(商去來)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서민들의 생활 용어가 그대로 시어로 쓰이고 있다.

- * 비판정신의 반영** : 대화 형식으로 쓰여진 이 작품은 ‘게젧’이라는 쉬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섞어 쓰는 데 대한 빈정거림을 통해서 양반들의 허세를 비판하고 있다. 즉 익살스러운 ‘문자쓰기’를 통해 장사꾼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나타내는데 이것을 통해 당시의 학자들의 현학적인 태도를 풍자한 것이다.

- * ‘두터비 파리를 물고’와 대상에 대한 태도와 정서 표출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시조는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회화화를 통해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는 대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진술로 행동을 관찰하여 묘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풍자를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매들에 동난지이 사오’는 대상과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직접 언술함으로써 풍자하고 있다.

독거비 더 독거비

독거비 더 독거비
흔 눈 멀고 다리 저는
저 독거비
흔 나리 업슨
파리를 물고
날닌 체
호야
두힘 썩흔
우흘 고다가
발작
나뒛쳐
지거고나.

모쳐로 몸이 날닐세만정
衆人僉視(중인침시)에
남 우릴 번 호겨다.

두꺼비 저 두꺼비 한 눈 멀고 다리 저는 저 두꺼비

한 날개 없는 파리를 물고
재빠른 체하여
두엄 쌓은 위를
쫓았다가
벌떡 나
뒹굴어
지겠구나.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많은 사람이 다
같이 말하며
보는 가운데
남 웃길 뻔하였구나.

- 성 격 : 상징적, 해학적
- 이해와 감상 : 두꺼비라는 제재의 둔하고 느린 모습을 과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왜소(矮小)함이나 비소(卑小)함을 웃는 격하(格下)의 웃음을 보이고 있다.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로삼아
감삼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썩 근처지거늘
皓齒丹脣(호치단순)으로
흠썰며
감썰며
纖纖玉手(섬섬옥수)로
두 꺾
마조
자바
바
여
나으리라
저 모시를.

엇더타, 이 人生(인생)
긋쳐갈 제
저 모시쳐로
나으리라.

— 〈가곡원류〉

모시를 이리저리 손바닥으로
비비어
꼬아서
잇다가,
한가운데가
뚝 끊어지거늘
흰 이와 붉은 입술로
흠뻑 빨며
이로
감아
빨며
가늘고
흰 손으로
두 끝을
마주
잡아서
비비적거리며
이으리라
저 모시를,
어떻다,
나의
삶이
끝나갈
때
나도
저
모시처럼
이으리라.

- 표 현 : 열거법, 도치법
- 주 제 : 오래 살고 싶은 욕망
- 이해와 감상 :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장수(長壽)에 대한 소망을, 한없이 이어지는 실에 비유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지은이는 길쌈을 하는 여성으로서, 유한(有限)한 사람의 목숨이 저 실처럼 길게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적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 지상정(人之常情)이다. 이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주제로 삼아 노래하고 있는 이 작품이야말로 진술하고 직선적인 평민들의 사고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한 노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뱃로도 쉬여 넘는 고기

뱃로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山眞(산진)이 水眞(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라리도
다 쉬여
넘는 高峯(고봉) 長城嶺(장성령) 고기,
그 너머
님이 왔다
호면
나는
아니
흔
번도
쉬여
넘어가리라.

— 〈악학승령〉

바람도 쉬여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개,
산지니(산에서 자라 여러 해 묵은 배),
수지니(손에서 길들인 배),
송골매,
보라매
같은 매들도
도중에
쉬어야
넘을
만큰
높은
장성령
고개,
그
높은
고개
너머에
임이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
가리라.

- 성격 및 표현 : 연정가(戀情歌), 과장법, 열거법
- 주 제 : 애타게 임을 기다림
- 이해와 감상 :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진솔하게 그리면서도 약간은 과장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평시조에 비해 발랄하고 動的(동적)인 느낌을 주는 이 노래는 바람이나 구름, 매들까지도 쉬어야만 넘을 수 있는 높은 고개를 임을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가겠다는 내용으로, 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숨김 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불가버슨 兒孩(아해)ㅣ들리

불가버슨 兒孩(아해)ㅣ들리 거 줄 테를 들고 기川(천)으로 往來(왕래) 하며,
불가송아 불가송아, 저리 가면 는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부로나니 불가송이로다.
아마도 世上(세상) 일이 다 이러흔가 ㅎ노라.

— 〈청구영언〉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을 왕래하면서,
“발가송아 발가송아, 저리 가면 죽는다. 이리 오면 산다.”고 하며 부르는 것이 발가송이로다.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런 것인가 하노라.



- 성격 및 표현 : 풍자적, 의인법, 대화체
- 주 제 : 서로 모해(模楷)하는 세상사
- 이해와 감상 : 어린아이가 잡자리를 잡는 단순한 놀이에 풍자성을 가미하여 서로 속고 속이며 모해(謀害)하는 세태를 풍자한 작품이다. 어린아이들이 잡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로 와야 산다고 부르듯이, 세상일이 아마도 다 그러하리라는 것을 소박하고 풍자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시조는 이처럼 서로 믿을 수 없는 악육 강식(弱肉強食)의 각박한 세태를 해학적으로 풍자하여, 그 속에 인생의 요묘한 진리나 생활 철학을 간직하고 있다. 이 노래도 이러한 면을 안으로 간직하면서 ‘불가송이(벌거숭이 아이들)’가 ‘불가송이(고추잡자리)’를 잡는다고 하여 이 세상의 일을 풍자한 것이다.

밤은 김허 三更(삼경)에 니르렀고

밤은 김허 三更(삼경)에 니르렀고 구진 비는 梧桐(오동)에 훗날
닐제 니리 궁굴 저리 궁굴 두로 싱각다가 잠못 니루웨라
洞房(동방)에 蟋蟀聲(실蟀聲)과 青天(청천)에 쏜기러기 소리 스
뜸의 무궁흔 심회를 짙지여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갓득에 다 석어스러진 구비간장이 이밤 쉬우기 어려워라.

밤은 깊어 한밤중에 이르렀고, 굶은 비는 오동나무에 훗날릴 때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잠 못 이루는구나.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하늘에 뜬 기러기 소리가 사람
의 허전한 마음을 짙어서서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가득이나 다 석어 몬드려진 내 속마음에 이 밤 지새우기가 어렵구나.

- 주 제 : 獨守空房(독수공방)의 외로움
- 이해와 감상 : 임과 이별한 후 떠나간 임을 생각하다 보니 밤은 어느새 깊어 삼경이 되었는데, 때마침 하늘에 처량하게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는 임그려 눈물로 지새우는 다 썩은 간장을 쓰리고 아프게 한다고 하고 있다. 종장으로 보아, 독수공방에서 떠나간 임을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書房(서방)님 病(병) 들어 두고

書房(서방)님 病(병) 들어 두고 쓸 것 업서
鐘樓(종루) 저지 달리 파라 비 스고 감 스고 榴子(유자) 스고
石榴(석류) 슯다 아즈츰츰 이저고 五花糖(오화당)을 니저 받여고느
水朴(수박)에 순 쏘즈 노코 한숨겨워 ㅎ노라.

— 〈해동가요〉

서방님이 병이 들어 달리 먹일 것이 없어
종루 시장에 나가 머리카락을 팔아서,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를 샀다. 그런데 아차차 잊었구나. 오색 사탕을 잊었구나.
(화제를 만들려고) 수박에 숟가락을 꽂아 놓고 한숨겨워 하노라.

- 성 격 : 사랑가, 해학적
- 제 제 : 화제의 재료
- 주 제 : 병든 남편에 대한 애뜻한 사랑
- 이해와 감상 : 평범한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모습을 관찰표현한 재미있는 작품이다. 병든 남편에게 화제를 만들어 주려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재료들을 샀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오화당을 빠뜨렸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 관찰을 통해 시정(市井)의 범상한 인물들에 대한 작자의 정겨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아즈츰츰’ 하는 감탄사를 적절히 구사하여 여인의 당황하는 모습과 남편에 대한 애뜻한 마음씨를 해학적인 필치로 그린 점도 묘미가 있다.

어마님 머느라기 낮바

어마님 머느라기 낮바 벽 바닥을 구루지 마오.
빗에 바든 머느린가 감세 쳐 온 머느린가. 밤나모 석은 등걸에 휘초리 나니긋치 앙살 신 아바님, 뱃 뵈 쇠뚝긋치 되종고신
어마님, 三年(삼 년) 겨론 망태에 새 송곳 부리긋치 쏘쫌흔신
누의님, 唐(당)피 가론 밧뵈 돌피 나니긋치 식노란 윗옷 굵튼
파쫌 누는 아들 ㅎ나 두고,
건 밧뵈 메곳 굵튼 머느리를 어디를 낮바 ㅎ시는고.
— 〈병와가곡집〉

시어머님, 머느리가 나쁘다고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빗 대신으로 받은 머느리인가, 무슨 물건값으로 데려온 머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난 회초리와 같이 매서운 시어머님, 별을 켜 쇠뚝같이 말라빠지신 시어머님. 삼 년 간이나 걸려서 엮은 망태기에 새 송곳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좋은 곡식을 심은 밭에 돌피(나쁜 품질의 곡식)가 난 것같이 섧노란 외꽃 같은 피똥이나 누는 아들(너무 어려서 사내 구실을 하지 못함을 풍자한 것) 하나 두고,
기름진 밭에 메곳 같은 머느리를 어디를 나쁘다고 하시는고.

- 성격 및 표현 : 비판적, 해학적, 직유법, 열거법
- 주 제 : 머느리의 원정(愾情), 왜곡된 가정 생활에 대한 비판
- 이해와 감상 : 대가족 제도에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노래한 것으로, 머느리의 원정(愾情)이 진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에는 풍자와 해학이 한데 얹혀 있다. 시집 식구들의 해학적인 모습을 통해 봉건적으로 왜곡된 가정 생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풍자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어이 못 오던가

어이 못 오던가, 무슴 일노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 城(성)을 찌고 城(성) 안에 담 찌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櫃(궤)를 찌고 그 안에 너를 必字形(필자형)으로 結縛(결박) 하여 너코 雙排目(쌍배목) 외걸쇠 金(금)거북 자물쇠로 슈긋슈긋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니.
흔 해도 열두 달이오 흔 들 설흔 늘의 날 와 볼 흘니 업스랴.
— 〈병와가곡집〉

어찌하여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뉘주를 놓고 뉘주 안에 궤짝을 찌고 그 안에 너를 오라쫄로 쫑쫑 묶어 넣고 쌍배목(궤으로 된 문고리를 걸어 두는 장식) 외걸쇠(하나로 된 걸쇠. '걸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으로 생긴 쇠) 금거북 자물쇠로 꼭꼭 잠가 두었느냐? 너 어째서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
한 해는 열두 달이요 한 달도 서른 날인데 나를 찾아올 하루의 여유가 없단 말인가.

- 성격 및 표현 : 연모가(戀慕歌), 해학적, 과장적, 연쇄법
- 주 제 :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 이해와 감상 :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원망조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종장에서는 연쇄법을 통해서 오지 못하는 까닭을 묻고 있다. ‘네가 오는 길에 무쇠성을 쌓고, 담을 두르고, 집일 짓고, 두지를 놓고, 궤를 찌고, 그 안에 너를 결박하여 넣은 뒤 자물쇠를 채웠느냐? 왜 그리도 오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리운 사람의 내방을 막는 여러 가지 제약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종장에서는 일 년 열두 달 삼백육십 일 중에 단 하루도 시간을 낼 수 없느냐고 책망하고 있다. 보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해학과 과장을 통해서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하겠다.

일신이 사자 호이

一身(일신)이 사자 호이 물엿 계워 못 견 썩.
皮(피)스겨 굵튼 갈랑니 보리알 굵튼 슈동니 줄이니 굵 쏜니
준 벼룩 굴근 벼룩 강벼룩 倭(왜)벼룩 기는 늑 쫄는 늑에 琵琶(비파) 굵튼 빈대 삭기 使令(사령) 굵튼 등에아비 다귀 삼의 약이 센 박희 늑은 박희 바급이 거절이 불이 쏘쫌흔 목의 달리
기다흔 목의 아원 목의 술진 목의 글임에 쏘록이 晝夜(주야)로 뵈 썩 업시 물건이 쏜건이 썰건이 쫄건이 甚(심)한 唐(당)벌리에서 얼어웨라.
그 中(중)에 참아 못 견딜손 六月(유월) 伏(복)더위에 쉬프린가 ㅎ노라.
— 〈해동가요〉

이내 몸이 살아가고자 하니 무는 것이 많아 견디지 못하겠구나.
피의 껍질 같은 작은 이, 보리알 같이 크고 살쥔 이, 굶주린 이, 막 알에서 깨어난 이, 작은 벼룩, 굵은 벼룩, 강벼룩, 왜벼룩, 기어다니는 늑, 뛰는 늑에 비파 같이 넓적한 빈대 새끼, 사령(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같은 등에 각 다귀(모기의 일종), 사마귀(벼바게비), 하얀 바퀴벌레, 누린 바퀴벌레, 바구미, 고자리, 부리가 뾰족한 모기, 다리가 기다란 모기, 아원 모기, 살쥔 모기, 그 리마(절족 동물), 뽕록이, 밤낮으로 쉴새없이 물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심한 당비루(피부병의 일종) 여기서 어렵도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은 오뉴월 복더위에 쉬파리인가 하노라.

- 성격 및 표현 : 풍자적, 열거법
- 주 제 : 세상살이의 어려움
- 이해와 감상 : 사람을 괴롭히는 ‘물 것’이 많아서 살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노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 것’은 단순히 ‘사람이나 동물의 살을 물어 파를 빨아먹는 벌레의 총칭’이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백성을 착취하는 온갖 부류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노래의 핵심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을 견딜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노래의 표현상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종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거를 통한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다. 사람을 괴롭히는 ‘물 것’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열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숭가쁘게 뛰어 나가는 익살스런 말투가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사실시조가 아니고는 보여 줄 수 없는 묘미를 흠뻑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장진주사(將進酒辭) 정 철(鄭 澈)

흔 잔(盞) 먹새근여, 쏜 흔 잔(盞) 먹새근여. 궂 것저 산(算)노코 무진 무진(無盡無盡) 먹새근여.
이 몸 주근 후(後)면 지게 우히 거적 더퍼 주리혀 밋여 가나
뉴소보 (流蘇寶帳)의 만인(萬人)이 우러네나, 어육새 속새 덮가 나모 白楊(백양) 수페 가지곳 가면, 누른히 흰 들 그논 비 굴근 눈 쇼소리브람 볼 제, 뉘 흔 잔(盞) 먹자 홀고.
흔물며 무덤 우히 잔나비 꼭람 볼 제야 뉘우친들 엇디리.
— 〈송강가사〉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꾹 꺾어 잔 수를 세면서 한없이 먹세그려.
이 몸이 죽은 후에는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서 졸라 묶여 실려 가거나. 곱게

꾸민 상여를 타고 수많은 사람이 옮겨 따라가거나. 역새품, 속새품, 껍칼나무, 버드나무가 우거진 숲에 한탄 가기만 하면 누린 해와 흰 달이 뜨고, 가는 비와 굵은 눈이 내리며, 회오리바람이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는가.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가 놀려 와 회파람을 불 때 뉘우친들 무엇하겠는가.

- 주제 : 술을 권함(최초의 사설시조)
- 이해와 감상 : 애주가(愛酒家)로 이름이 높고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인 송강의 성품이 잘 드러난 권주가(勸酒歌)이다. 대부분의 사설시조가 작자연대 미상인데 반해 이 노래는 지은이의 신원이 확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초창에는 송강의 호방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으며, 종장과 종장에서는 인간의 최대 약점인 죽음과 인생의 무상감을 강조하여 상대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확연하다.

▶ 표현적으로 술을 먹을 것을 권하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향락을 즐기는 호방한 면과 아울러 구절마다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나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작품은 ‘권주’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인생무상’을 내면의 주제 의식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쫑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흘 제면 여다져 불가 ㅎ노라.

— 〈청구영언〉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내고 싶다, 이 나의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고모장지나 세살장지나 들장지나 열장지에 암돌쩌귀, 수돌쩌귀, 배목걸새를 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서 이 나의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그리하여 가끔 가슴이 몹시 답답할 때면 여다져 불가 하노라.

- 성격 및 표현 : 해학적, 열거법, 반복법
- 주 제 : 답답한 심정의 해소연
- 이해와 감상 :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번뇌에서 기인하는 답답한 심정을 해소연하고 있는 작품이다. 답답한 가슴을 꼭 막혀 있는 방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창문을 만들어 여단음으로써 그 답답함을 해소해 보겠다는 착상이 참으로 기발하고 재미있다. 가슴에 창문을 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만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매우 적절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생활 언어를 구사하여 문 만드는 모습을 과장적으로 묘사한 것은 다분히 해학적이기도 하지만,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리지 않고 이처럼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우리 나라 평민 문학의 한 특징이 엿보인다.

▶ ‘가슴에 창을 내겠다’는 시행에 나타난 전통적인 발상과 표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은 문중의 ‘오관산요’나 고려 속요 ‘정석가’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우리 민중의 전통적인 욕망 표출 방식의 하나이다. 오늘날에도 눈에 콩깍지가 썩었다, 입에 자물쇠 채우다, 입에 차크 단다 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 또한 발상과 표현면에서 전통적이라 할 수 있다.

▶ 중장의 표현미를 시간의 윤희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이 시의 화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창을 달겠다고 했지만 여러 창문 부속물들을 잔뜩 나열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엉뚱함도 묘미가 있는데, 종장의 후반부에서 다시 극적 전환을 꾀해 앞에서 열거한 많은 부속물들을 단숨에 이용하여 창을 단다고 하여, 앞에서 보낸 시간을 단숨에 만회하고 있다. 그 만회의 비결은 창을 다는 솜씨가 좀스럽지 않고 대범하고 또 날렵을 보여 준 표현에 있다. 즉 화자는 작업 도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시어(크나큰)을 도구 앞에 내세우고, 작업이 빨리 진행됨을 나타내는 의태어(똑딱)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답답하고 다급한 (마음)에 대응하여 시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창)이 완성되는 것이다.

창밧기 어른어룬커늘

窓(창) 밧기 어른어룬커늘 님남 너겨 필쥬 썩여 쭈 나서 보니,
님은아니 오고 으스름 달밧چه 널구름이 날 속여고느.
맛초아 밤임세망경 형여 낮이런들 남 우일 번ㅎ여라.
— 〈청구영언〉

창 밖에 무엇이 어른거리기에 임으로만 여겨 필쥬 뛰어서 급히 나가 보니,
임은 오지 않고 어스레한 달빛에 지나가는 구름이 나를 속였구나.
마침 밤이었기에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을 웃길 뻔한 일이었다.

- 성 격 : 연모가(戀慕歌), 해학적
- 주 제 :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 이해와 감상 : 사랑하는 임을 간절히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를 임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황급히 뛰어나갔다가, 속은 것을 알고 몹시 결연쩍어하는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해학적이다. 이 노래는 다른 사실시조 ‘님이 오마 ㅎ겨늘 ……」과 사상 전개와 주제가 매우 흡사하다. 특히 종장의 표현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하나가 다른 작품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이 노래의 발상과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숨아 세한숨아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 장즈 세살 장즈 들 장즈 열 장즈에 암돌 귀 수돌 귀 비목걸시 쭈닥 박고 크나큰 즘음쇠로 숙이숙이 츠엿논디 屏風(병풍)이라 밀겨 접고 簇子(족자)ㅣ라 덕딕풀 말고,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즘 못 드러 ㅎ노라.
— 〈병와가곡집〉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고모 장지, 세살 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쩌귀, 수돌쩌귀, 배목걸새 똑닥 박고, 크나큰 자물쇠로 깊이깊이 채웠는데, 병풍이라 밀겨 접은 족자라 대대굴 마느냐.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어찌된 일인지 네 가 온 날이면 즘 못 들어 하느구나.

- 성 격 : 수심가(愁心歌), 해학적
- 주 제 : 그칠 줄 모르는 시름
- 이해와 감상 : 삶의 고뇌에서 오는 한숨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해 뉘으로써 슬픔을 웃음으로 해소시키는 묘미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자물쇠로 다 잠그고, 문을 닫을 대로 다 닫아도 어느 틈으론가 새어 들어오는 가는 한숨, 네가 오는 곳을 모르겠다만, 네가 온 날 밤이면 잠을 들 수가 없다는 푸념 속에 세상사를 한탄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한숨을 의인화한 수법도 뛰어나지만, 수사 의문법(修辭疑問法)을 사용하여 생의 고달픔과 고뇌를 형상화한 표현 기교도 매우 훌륭하다. 이 시조에서 한숨은 곧 생의 고뇌를 의미하므로 이 작품을 통해서 세상사 모두가 고뇌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추측해 보기는 어렵지 않다.

흔 눈 멀고 흔 다리 저는

흔 눈 멀고 흔 다리 저는 두터비 서리 마즈 꼭리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건넌산 브라보니 白松骨(백송골)리 써 잇거늘 가슴에 금죽헌여
푼덕 썩다가 그 아리 도로 갓바지거고나.
뭇쳐로 늘닌 젤 만경 횡여 鍾者(둔자)ㅣ런돌 어혈질 변흔패라.
— 〈병와가곡집〉

흔 눈 멀고 한 다리 저는 두꺼비, 서리 맞은 파리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앓아,
건넌 산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기에 가슴이 끔찍하여 풀땀 뿜다가 그 아래 도로 자빠지졌구나.
다행히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행여 둔한 늙이런들 피땀들 뻘뻘했다.

- 성 격 : 상징적, 풍자적
- 주 제 : 양반들의 허장성세(虛張聲勢) 풍자
- 이해와 감상 : 두꺼비, 파리, 백송골 등을 의인화하여 약육 강식(弱肉強食)하는 인간 사회를 풍자한 노래이다. 여기에서 '두꺼비'는 '양반 계층'을, '파리'는 '힘없고 나약한 평민 계층'을, 그리고 '백송골'은 '외새(외세)'를 상징한다. 따라서 특권층인 두꺼비가 힘없는 민중들을 괴롭히다가 강한 외세 앞에서 비굴해지는 사태를 익살로 풍자한 것이다.

기출문제 - 고려속요, 경기체가, 한문학

2005-[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6점)

(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청산별곡’ 제3장

22. (라)의 ㉠을 중세 **국어 문법**과 현대 **국어 문법**에 따라 각각 분석할 때, 그 **발화 주제**와 **행위 주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점)
•중세 국어 문법에 따라 분석할 때
•현대 국어 문법에 따라 분석할 때

23. <보기>에 제시된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라)의 ‘청산별곡’ 전부를 **가창**(歌唄)한 방식을 추론하고, ㉡의 **가장 효과**를 설명하시오. (2점)⁶⁾

< 보 기 >

- 전체 텍스트는 (라)와 **동일한 형식**을 갖춘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장의 화자는 **동일 화자가 아니고**, 각 장에 표현된 **화자의 정서는 서로 대립하거나 모순**을 이루기도 한다.

2009-25. “『가시리』의 **심미적 예술성**과 **문화 전승적 가치**를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로 교수·학습 계획을 세웠다. (가)~(마) 중 교수학습 내용에 따른 활동과 보충 자료가 모두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2점)

	교수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보충 자료
(가)	화자 특성 확인	이별의 상황에 처한 여인이 격정적 호소와 애원의 어조로 노래함을 확인하고, 같은 특성의 화자가 나타나는 경우와 비교함.	작자 미상, 「정읍사(井邑詞)」
(나)	시적 의미 파악	제4연 ‘선흔면’의 의미에 따라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유사한 경우와 비교함.	황진이(黃眞伊), 「어저 내 일이야」
(다)	시적 표현 이해	이질적인 내용의 두 표현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융합함을 이해하고, 현대시와 비교함.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	양식 특성 이해	동일 어구의 반복적 표현과 3음보격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 같은 표현 관습을 지닌 경우와 비교함.	변계량(卞季良), 「화산별곡(華山別曲)」
(마)	문화적 의미 이해	작품에 드러나는 ‘은근과 끈기’의 태도가 시대와 양식을 넘어서는 한국 문학의 특징임을 이해함.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① (가), (나), (마)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2010-〈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문학사적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三藏寺裏點燈去 有社主兮執吾手 倘此言兮出寺外 謂上座兮是汝語 삼장사에 등불을 켜러 갔더니 그 절 사주가 내 손목을 쥐더이다. 이 말이 절 밖으로 새어 나간다면 상좌의 말이라고 이르겠노라.	< 삼장(三藏) > 이 두 노래는 충렬왕 때 지어진 것이다. 왕이 소인(小人)의 무리들을 좋아하고 잔치와 놀이를 즐겼으므로, 충애를 받던 오기·김원상과 환관 석천보·석천경 등이 기악(伎樂)과 여색(女色)으로 왕의 환심을 사기에 힘썼다. 그들은(……) 여러 고을에 충애받는 신하를 보내어 관기(官妓) 중에 미모와 기예를 갖춘 이를 뽑고, 또 성 안의 관비(官婢)와 무녀(巫女)로서 가무(歌舞)에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궁중에 적을 두어 머물게 하였다. 이들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말총갓을 씌워서 따로 한 무리를 만들어 남粧(男粧)이라 부르고 이 노래들을 교습하였다. < 고려사 악지 > * 원문에는 「삼장」과 「사룡(蛇龍)」 두 곡이 실려 있다.

- ① 궁중의 관료들이 민간 음악에 능한 예능인들을 궁중에 불러 모아 교습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노래가 궁중 연회에 맞게 변개되어 속악(俗樂)으로 유입되었다.
- ② 왕의 주변에서 전횡을 일삼던 부패 관료들에 의해 궁중 음악이 난삽해진 현실을 우려한 신홍 사대부들이 민간의 노래를 수집하여 신조(新造)를 창작하였다.
- ③ 구비 전승되던 무가들이 제의적 성격을 잃고 오락성이 강화된 모습으로 궁중으로 들어간 후 아악(雅樂)과 결합하여 새로운 궁중 음악이 만들어졌다.
- ④ 지방에서 유행하던 노래들이 남장별대를 통해 정제된 형태로 재편된 후 경기체가계 약장(樂章)과 결합하여 새로운 궁중 음악이 만들어 졌다.
- ⑤ 민간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자 원나라의 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던 당시 궁중 음악이 당악(唐樂) 중심으로 바뀌었다.

2007-〔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7점)

(가) 元淳文원순문 仁老詩인노시 公老四六공노소륙
李正言이정언 陳翰林딘한림 雙韻走筆쌍운주필
冲基對策통기퇴척 光鈞經義광균경의 良鏡詩賦량경시부
㉠위 試場시당入景경 괴 엇더흔니잇고
(業)琴學士玉금혹스의 玉笋門生옥순문싱 琴學士금혹스의 玉笋門生옥순문싱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제1장)

唐唐唐당당당 唐楸子당추즈 皂莢조협남괴
紅蓼실로 紅蓼글워 穉小년형쇼년하
혀고시라 밀오니라 鄭小年형쇼년하
위 내 가는 디 늘 갈세라
(業)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쌍슈入길해 削玉纖纖삭옥섬섬 雙手쌍슈入길해
위 携手同遊휴슈동유入景경 괴 엇더흔니잇고(제8장)
— 한림제유, ‘한림별곡(翰林別曲)’에서 —

(나) 예문관(藝文館)이 더욱 심하다. 신래(新來)가 처음 벼슬에 임명되면 잔치를 연다. (중략) 새벽이 되면 상관장(上官長)이 술자리에서 일어선다. 여러 사람들이 다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한림별곡’을 부른다. 이에 맑은 노랫소리가 매미 울음처럼 쏟아지는 사이에 개구리 들끓는 소리를 섞어 시끄럽게 놀다가 날이 새면 비로소 흠어들어진다.
— 성현, 『慵齋叢話(慵齋叢話)』에서 —

18. “소재, 형식, 사상(詩想)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시 작품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에 따라 (가)를 지도하고자 한다. 제1장과 제8장이 노래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각각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각 항목에 맞추어 서술하시오. (5점)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내용	
활동1 (지식)	창작에 대한 문학사적 지식 이해하기	무신 집권기인 고려 고종 때 신홍 세력인 한림제유가 지은 작품	
활동2 (분석)	1장과 8장을 대조하기	소재의 성격	1장: 시부 : 8장: 추천 :
		시적 분위기	1장: 8장:
		대상에 대한 태도와 표현 방식	1장: 8장:
		형식의 특성	1장: 정형성 8장: 탈정형성
활동3 (종합)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조를 통해 시상의 전개 파악하기		

19. ㉠이 제1장에서 하는 시적 기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서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조와 어법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2점)

Ⅲ 가시리 기출해설 Ⅲ

- 1) 심미적 예술성: 시의 구성요소와 시적장치 (하위갈레인 시적 속성)
- 2) 문화전승적가치: 한국문학에 나타난 문화적 전통 (내용, 형식, 표현 중 내용면인 문제해결방식)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보충 자료
기본 갈래 ↓ 하위 갈래	1. 문제 상황 2. 화자의 처지 3. 화자의 태도	이별의 상황에 처한 여인이 격정적 호소와 애원의 어조로 노래함을 확인하고, 같은 특성의 화자가 나타나는 경우와 비교함.	작자 미상, 「정읍사(井邑詞)」
	시어의다의성 (Ambiguity)	제4연 ‘선흔면’의 의미에 따라 작품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유사한 경우와 비교함.	황진이(黃眞伊), 「어저 내 일이야」
	상황적 역설	이질적인 내용의 두 표현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융합함을 이해하고, 현대시와 비교함.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변종 갈래	변종갈래 속성(속요)	동일 어구의 반복적 표현과 3음보격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 같은 표현 관습을 지닌 경우와 비교함.	변계량(卞季良), 「화산별곡(華山別曲)」
문학 문화	한국문학 내용특성	작품에 드러나는 ‘은근과 끈기’의 태도가 시대와 양식을 넘어서는 한국 문학의 특징임을 이해함.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서술형 시험 문제 답안 작성요령 ■2005-[21~22] ■ ◆ 단서찾기 : 21+22 각 문항과 〈보기〉, 〈조건〉 등에서 단서가 되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출제 의도를 추론해보자

21의 내용은 문법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청산별곡〉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22의 내용은 창작 당시 속요가 노래로 향유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지 이를 종합하면 이 문제는 청산별곡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 속요의 구비문학적 속성과 향유방식에 관한 질문이란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교육과정을 떠올려 봐야지...음..속요를 끌어 올리면 갈래가 되고 ... ‘문학갈래의 특성을 안다’와 ‘문학갈래의 향유방식을 안다’ 정도가 되겠네...그래, 학습목표는 ‘문학갈래의 특성을 안다’는 바로 전 시간에 했던거고 이번 시간엔 ‘문학갈래의 전개와 구현양상을 안다’라는 학습목표로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 이런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도출하면 끄읗~

1) ■ 학습목표 : 문학의 갈래와 특성을 안다 / 문학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 이론적 배경 - 문학해석의 4가지 관점 중 존재론적 관점 , 문학의 다의성(모호성) 중 언어요소

학습내용요소 • 문학의갈래를 안다. • 문학의갈래에따른 특성을안다

어미의 주된 기능: 청자와 화자, 문장주체, 제3자와의 관계 (상하관계, 친소관계)를 규정한다. 문법지식인 ‘문장의 종결 표현에 따른 상대높임법’ 을 적용하여 발화주체와 행위주체와의 관계를 밝히면 된다. [문학갈래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학습목표로 수업을 전개하기 위한 학습 지도안이다. 교수학습자료로 속요를 제시하고 구비문학으로서의 속요가 지니는 공동창작성을 단서로 해당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된 문제이다. 에이브러햄즈의 ‘문학해석의 관점’ 중 존재론적 관점에 기초해 작품을 해석하고 있으며 애플슨이 주장한 ‘시(문학)의모호성’ 일곱 가지 중 언어가 지니는 요소에 의해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는가를 평가요소로 설정한 문제이다

단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과정 (추론)			문제해결(답안)	
		문법요소	기능		문장의종결표현따른 상대높임법을 적용,	
~ㄴ다	중세 (1점)	의문형종결어미	의문문의개념	상대높임법		
	현대 (1점)	평서형종결어미	평서문의개념			

합격생이 추천하는 백한빛 선생님의 전설적인 명강의

2016시험대비 최종핵심이론정리

최종마무리합격특강

예유한빛 www.eduhanvit.com

상담및수강신청 042/584-5331

2) ■ 학습목표 : 문학갈래의 전개와 구현양상을 안다 -향유,향유방식,연행방식,전송방식 , 향유방식이 문학의 갈래 및 양상을 규정할 수 있다 예) 조선 후기 소설의 향유방식으로 회장체 소설이 등장한다는 점 등 ■

학습내용요소 • 문학갈래의 전개양상을안다 • 문학갈래의구현양상을안다

고려 속요가 서정민요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는 점과 속요의 향유방식이 노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직된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출문제 경향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과는 교육과정이 문제요 답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항목을 해석하는 과정에 제시된 용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다. 위의 학습목표에 대한 해설을 읽을 때 ‘구현양상’ 이라는 용어에 집중하였다면 속요를 공부할 때 서정민요의 영향을 받은 속요, 구비문학적 속성을 지닌 속요, 경기체가와 구별되는 속요, 고려속요의 향유방식이 노래였다는 점과 후대에 문자언어인 기록문학으로 전송되었다는 점에서 속요를 한역한 이재현의 익재난고 ‘소악부’ 등에 대한 정리를 소악부의 존재방식과 창작동기라는 차원에서 꼼꼼하게 정리했을 것이다.

단서		변종갈래인 속요의 특성 (기능/가창방식에 따른 분류)				민요의 영향을 받은 속요의 특성 (가창방식의 효과)	
전연	동일한 형식	속요의 형식은 분연체로 각 연은 분절체로 구성되어 있다				민요의 개념, 민요의 종류, 민요의 종류에 따른 특성 그리고 심리적 실제	
	서로 다른 화자	고려 속요는 분연체로서 각연은 전절이 후절보다 긴형식을 갖춘 분절체로 이루어졌다. 전절은 고단한 삶의 현실이, 후절은 유음이나 양성모음 등을 통해 전절의 고달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얼핏 보면 전절과 후절의 내용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고백하는 전절의 화자와 그래도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위로해주는 후절의 화자가 주고 받는 대화로 보면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요의 향유방식은 노래이다. 노래는 고달픈 삶의 현실 속에서도 즐거움과 위안을 준다. 이를 매 연마다 반복함으로써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은 지금보다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만든다. 어찌보면 주술이고 자기최면인 것이다. 이를 문학작품 속에 쓰인 언어가 주는 심리적 효과라고 한다	
	모순된 표현					■ 채점요소 ■ •기능에 따른 분류: 유희요 •가창방식에 따른 분류: 선후창 방식 •가창효과: 심리적 실제	

*이론적으로는 문자언어에 기대서 삶의 비애를 낙천주의적 삶의 태도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모순된 진술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향유 및 연행방식 중심으로 설명하면 전혀 모순된 표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대화(공감적 듣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민요의 가창방식을 추론해야 한다.

■ 예상문제 : 구비문학으로서의 속요 ■ 정석가의 한 연이 서경별곡과 유사하다든가, 속요의 후렴구들이 유사한 점, 고려사 악지나 이재현의 〈익재난고〉 소악부에 실린 작품 작품과의 비교 등...자료정독할 것.

글요인 / 계획하기 / 주제의식		주술적 성격/낙원의식 - 청산과 바다는 심리적 실제로 현실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의 어느 골자락에 있을 지도 모르는 상상의 공간으로 현실의 화가 미치지 않는 또 다른 공간으로 추론 가능(이상향)									
◆전체적으로볼때형식상 8연으로구성되었지만의 미상두개의단락으로구성 된작품 ◆소재나제재는현실을비 유나상징적이미지로처리 하기때문에비유와상징은 필히정리!	■ 시의소재 ■ 시의제재 ■ 시의구성 ■ 사상전개 ■ 연의구성	청산				바다				제재	□ 이 시의 구성방식은? 이 작품은 총 8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2개의 단락으로 구성 □ 이 시의 사상전개방식은? 내용 전개면에서 볼 때, 전반부에 해당하는 1~4연은 청산에서의 삶을, 후반부에 해당하는 5~8연은 바다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6연이 뒤흔들음을 알 수 있으며 ‘청산별곡’ 등과 같은 속요의 구비문학적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학습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각 연의 구성방식과 전개방식은? 각 연은 다시 전절과 후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절이 후절보다 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내용면에서 볼 때,전절은 삶의 비극성을, 후절은 낙천주의적 삶의 태도를 양성모음이나 유음을 반복하여 배치하고 있다. ‘청산별곡’의 이러한 특성은 공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기체가에 영향을 끼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문제해결방식(해학적 표현)이 잘 드러난 작품 의 예로 활용할 수 있다
		전반부 : 1~4연				후반부 : 5~8연					
		1연	2연	3연	4연	5연	6연	7연	8연	소재	
사전체/분장체(8) 1연체계/분절체 전절 후절	■ 전절	현실/현실인식		부정적인 현실인식(체념/현실순응)				모순되는 내용 임에도향유및 연행방식을고려하면서로다른두화자의자연스러운대화!	시의 구성 사상 전개		
	⇓	(사고의 과정)		낙천주의적(미래지향적) 삶의 태도							
	■ 후절	현실대응방식		긍정적 현실인식(승화/현실극복)							
어조 운율	■ 문장	문법요소: 살아리랴다, 본다... (문법요소의 기능과 의미:다양한 해석가능) 표현기교: 반복, 역설...(사스미 값대에 올라서...)								어조	
	■ 단어	창작 당시의 현실을 고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 운율	3/3/2조의 3음보, aaba반복, 양성모음과 유음의 반복									

■ 2007년 18~19번 ■ 속요와 경기체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반복 출제 가능하니 정확하게 정리할 것

속요			공통점	경기체가		
다양하다			3음보			
다양하다			후렴구			
연의구분이있다			분장체	연의구분이있다		
전절	서정	서정	연/분절체	전절	교술	혼합
후절	서정	갈래	전절)후절	후절	서정	갈래
서정민요의영향			구비/기록	속요의영향(5~8연)		
aaba형의배열				소재/제재의성격		
서로다른화자				한자+국문		
기능:유희	가창:선후창					

한림별곡	경기체가 1~4연	속요 5~8연
주제	창작계층의자금심	
소재	과거정풍경	향토적
구성/전개	분장체	분장체
	분연체	분연체
	교술+(위)서정	교술+서정
어조/문체	정형	탈정형
	한자+이두	한자+국문

1장 / 1~4장은 경기체가의 본질적 특성 반영 형성원리+존재방식+혼합갈래 (분절체/전절:교술,후절:서정)			
소재:과시장의풍경 시적분위기: 〈용재총화〉인용문(나) 참고 [향락적이며 퇴폐적인 분위기]			
전반부*(경기체가)			
1연	2연	3연	4연
전절: 현실세계의 관념적 나열 (창작계층의 현실주의정신반영) 후절(정형): 시상의 고조 ➡ 감탄사/-잇고 ➡시상의집중, 완결(자금심)			
의문형종결어미에 담긴 화자의 태도: ~잇고			
한자+이두/존재및전송방식과 관련됨 - 향유방식은 노래로!			

사회문화적배경
담당계층의세계관(성격)
◀ 내용요소 ▶
주제의식
소재/제재의성격
시적분위기
태도및표현방식
◀ 형식요소 ▶
시의구성/전개[분연체]
사상전개방식
시의구성방식
1연의구조[분절체]
전절의형식과내용
후절의형식과내용
◀ 표현요소 ▶
문장구조
문법요소
표현기교
단어나 어휘
◀ 언어적관습 ▶

8장 / 5~8장은 속요의영향을받았을의미			
향토적인 소재 시적분위기 [향토적이며 풍류적]			
후반부*(속요 →경기체가)			
5연	6연	7연	8연
전절: 향토적이며 토속적인 소재/제재			
후절(탈정형)			
상대적으로 국문			

